DBpia

신라 제34대 효성왕의 生母에 관하여

On the Biological Mother of the 34th King Hyoseong of Shilla

저자 (Authors)
서정목
Suh, Chung-mok

출처 (Source)
한국고대사탐구 23, 2016.8, 105-162 (58 pages)
Sogang Journal of Early Korean History 23, 2016.8, 105-162 (58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고대사탐구학회
Society for the Study of Early Korean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003124

APA Style
서정목 (2016). 신라 제34대 효성왕의 生母에 관하여. 한국고대사탐구, 23, 105-162.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30 13:26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신라 제34대 효성왕의 生母에 관하여

서 정 목*

Ⅰ. 연구의 목적
Ⅱ. 학계의 일반적 이해
Ⅲ. 효성왕의 생모는 소덕왕후가 아니고 엄정왕후일 가능성이 크다.
Ⅳ.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신라 제34대 효성왕의 생모가 소덕왕후가 아니고 엄정왕후일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효성왕의 모가 소덕왕후라고 적은 것은 효성왕의 법적 어머니를 적은 것으로 보인다.

효성왕의 생모가 소덕왕후가 아니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거는 6가지로써, 소덕왕후의 왕비 재위기간, 중경이 원자가 아니고 왕자인 점, 왕자들의 이름, 효성왕의 출생년도, 김순원 집안과 효성왕의 관계, 효성왕과 경덕왕의 관계 등이다. 그러면 효성왕의 생모는 엄정왕후일 가능성이 커진다. 효성왕의 생모가 소덕왕후가 아니고 엄정왕후라면, 우리는 이 사실로부터 그 당시의 정치적 구도와 갈등을 명백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된다. 경덕왕의 생모는 김순원의 딸 소덕왕후임이 확실하다. 그러면 효성왕과 경덕왕은 생모가 서로 다른 이복형제가 되기 때문이다. 신충의 「원가」는 이 이복형제의 왕위 다툼인 골육상쟁을 계기로 지어진 것으로 설명된다.

효성왕을 지지한 세력은 신목왕후(의 어머니)의 후계 세력으로 보인다. 경덕왕을 지지한 세력은 자의왕후의 후계 세력일 것이다. 효성왕대의 정치적 갈등은 신목왕후의 (어머니의) 지지를 받던 엄정왕후의 아들인 효성왕을 밀어내고, 소덕왕후의 아들인 헌영을 즉위시키려는 자의왕후의 후계세력 김순원 집안의 음모로 설명할 수 있다.

* 서강대학교 국문과 명예교수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30 13:26(KST)

주제어 : 효성왕, 생모, 김순원, 엄정왕후, 소덕왕후, 경덕왕

Ⅰ. 연구의 목적

이 글은 쟁점 (1)을 논증하고자 한다.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신라 제33대 聖德王, 제34대 孝成王 시대에 대한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는 효성왕의 모가 성덕왕의 後妃 소덕왕후라는 것은 법적인 모를 의미하는 것이고, 효성왕의 생모는 성덕왕의 先妃 엄정왕후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1) 효성왕의 생모는 炤德王后가 아니고 嚴貞王后일 가능성이 크다.

효성왕은 『삼국유사』의 권 제5 「피은 제8」 「信忠 掛冠」 조에서 신충으로 하여금 「怨歌」를 짓게 한 것으로 유명한 왕이다.[1] 「원가」 창작의 정치적 배경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정치적 세력구도를 실상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1)은 그 당시의 정치적 세력구도를 설정하는 데에 핵심 요소이다.

향가 「원가」는 「신충 괘관」 조의 내용을 정밀 분석한 서정목에[2] 의하

1) '掛冠[관을 벗어 걸고 벼슬을 버렸다.]'는 신충의 일이 아니고 이순의 일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양주동, 『고가연구』, 일조각, 1942/1981, 609~611쪽; 이기백, 「경덕왕과 단속사, 원가」 『신라 정치사회사 연구』, 일조각, 1974, 219~223쪽에 있다. 「信忠 掛冠」은 '신충이 벼슬을 버렸다.'로 번역하면 안 되고 '신충의 작록 탐함과 변절', '이순의 벼슬 버림과 피세'로 나누어 번역해야 한다는 주장은 서정목, 『요석』 – 「원가」에 대한 새로운 생각: 효성왕과 경덕왕의 골육상쟁, 글누림, 2016a, 146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2) 서정목, 「「원가」의 창작 배경과 효성왕의 정치적 처지」 『시학과언어학』 30호,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30 13:26(KST)

면 (2)와 같이 설명되는 시이다.

(2)a. 신충은 원래 효성왕의 아우 헌영을 지지하는 세력이었으나 736년 가을의 잣나무 아래에서의 태자 승경과의 맹약에 따라 태자를 지지하는 처지로 입장을 바꾸어 승경의 왕위 계승을 도왔다.

b. 737년 2월 성덕왕 사후 효성왕이 즉위하고 공신들에 대한 논공행상을 할 때, 효성왕은 상대방의 반대로 신충에게 상을 주지 못하였다. 이 상대방은 헌영을 지지하는 세력이다.

c. 신충은 이에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는 시를 지어 잣나무에 붙였다.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질 좋은 잣이/ 가을에 아니 말라 떨어지듯이/ 그대를 아름다이 여겨가리라/ 하신 모습이 변해 버린 겨울에여// OOO OOO/ OOOO OOOO/ 달이 그림자 내린 못가의/ 물결에 어리는 모래로다// 모습이야 바라보지만/ 세상 모든 것 잃은 처지여// [2행 망실][3]

d. 잣나무가 시들었다. 시를 읽은 효성왕이 놀라서 신충에게 상[작과 록]을 하사하자 잣나무가 되살아났다. 아마도 신충은 잣나무 아래에 소금을 뿌려 시들게 하였다가 작록 하사 후에 소금을 걷어내고 잣나무에 물을 흠뻑 주었을 것이다.

e. 이후 신충은 효성왕 3년[739년]에 중시로 승진하고 효성왕을 배신하여 헌영의 편에 서서 헌영을 즉위시키는 데 중심 역할을 하였다. 신충은 742년 경덕왕 즉위 후에도 2년 동안 중시로 있었으며 757년 정월에 상대등이 되었고 763년 8월에 기상 이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중 김옹과 함께 면직되었다. '由是寵現於兩朝[이로 하여 총애가 두 조정에 두드러졌다.]'는 신충이 '忠臣不事二君'을 하지 못하고 두 임금 아래 현달하였다는 뜻이다.

이로 보면 「원가」는 신충이 태자 승경을 지지한 것을 후회하고 힘없는

시학과언어학회, 2015d와 서정목, 앞의 책 제2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3) 여기서의 「원가」의 해독은 김완진, 『향가 해독법 연구』, 서울대 출판부, 1980, 137~144쪽를 따랐다. 시의 끝에 '後句亡'이라 되어 있어 망실된 두 행이 제9행, 제10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시의 내용을 보면 망실된 행은 제5행, 제6행이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30 13:26(KST)

효성왕을 떠나 헌영의 편으로 되돌아가겠다는 의도를 표현한 '政略歌'이다. 이 시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정치 세력 구도의 실상을 알아야 한다.

현재처럼 『삼국사기』, 『삼국유사』 기록의 글자에만 매달려 효성왕과 경덕왕이 소덕왕후의 아들로서 同母 兄弟라고 하면 이 둘이 왕위를 두고 골육상쟁을 벌이는 것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 두 왕의 아버지가 성덕왕인 것은 확실하다. 그러므로 母가 누구인가, 또는 生母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이 싸움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핵심 조건이 된다. 경덕왕의 생모가 소덕왕후일 것은 거의 확실하다. 그러니 효성왕의 생모가 소덕왕후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된다.

Ⅱ. 학계의 일반적 이해

「원가」에 대하여 국어국문학계에서 이렇게 접근하려면 필연적으로 이 시대에 관한 전망을 국사학으로부터 가져오지 않을 수 없다. 한국사, 그 중에서도 신라사를 개관한 책을 보기로 한다.

필자는 「원가」에 대한 연구서인 서정목(2016a), 『요석』의 편집과 교정이 다 끝난 2016년 3월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9』 「통일신라」, 탐구당, 1998을 읽었다. 그리고는 「원가」를 연구하기 전에 이런 책을 읽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안도감이라 할까, 두려움이라 할까, 그런 것이 엄습해 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이 경험을 글로 적어 남겨서 후학들에게 꼭 전해야 하겠다는 사명감을 느꼈다. 그 책의 100~101면에는 (3)과 같은 기술이 있다.

(3)a. 성덕왕이 행한 왕권강화 노력은 … 일정한 왕당파 세력의 지지와 협력을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30 13:26(KST)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孝昭王代의 정치에 참여하였다가 몰락하여 소외당하고 있던 인물들에게 커다란 관심을 갖고 중용했다. 진골귀족세력의 영향을 벗어나기 위하여 선택한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 이들 세력은 성덕왕의 후비로 딸을 바친 金順元으로 대표되는 것으로 보인다.

b. 그렇지만 이와는 달리 엄정왕후로서 상징되며 성덕왕의 왕권을 제약하던 진골귀족세력은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되었을 것임은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두 세력의 대립 충돌은 필연적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두 세력의 대립 충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성덕왕의 첫째 왕비인 엄정왕후의 出宮事件이다.

c. 성덕왕은 19년에 가서 새로이 왕비를 맞아들이고 있는데, 바로 왕당파 세력으로 중시출신인 金順元의 딸이었다. 이 사건은 왕당파로 하여금 더욱 세력을 떨칠 수 있게 해준 것이 아닐까 한다. 3년 후 김순원의 딸에게서 난 아들을 3세의 어린 나이로 太子로 책봉하여 성덕왕은 자기의 즉위과정과는 달리 왕위계승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일찍부터 없애려고 하였다. 그리고 이후 丁田을 실시하고, 자기 주위의 핵심인물들을 將軍으로 임명한다든지, 또한 浿江 이남 지역의 획득 등을 통하여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꾀하고자 하였다.

d. 그 결과 성덕왕은 이제 전제왕권의 극성기를 구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한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9』「통일신라」, 탐구당, 1998, 100~101쪽>

이 기술은 추상적인 큰 결론인 (3d)의 추측을 하기 위하여 긴 내용을 쓰고 있다. 그러나 (3d)는 검증할 수 없는 추측이다. (3d)를 증명할 만한 근거는 찾기 어렵다. 그리고 (3d)를 도출하는 과정에 동원한 세부적인 역사적 사실들 가운데에는 틀린 것이 있다. 그것도 결정적인 사실들이 틀려 있다. 그러면 (3d)도 올바른 결론이 아니다. (3)은 입증되기 어려운 역사기술이다. 현재의 신라중대 정치사 연구결과는 (3d)를 미리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려고 무리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3)이 가진 문제점과 명백하게 역사적 사실에 어긋난 기술들을 적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3a, b)는 왕당파와 진골귀족세력의 대립을 설정하고 있다. 그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30 13:26(KST)

러나 이 대립은 성립하기 어렵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여, 이 대립이 성립하려면 왕당파는 진골귀족일 수 없고 진골귀족은 왕당파일 수 없다. 그런데 이 시기에 왕비를 배출하거나 높은 관등에 오르는 사람들은 모두 진골 귀족이다. 그러므로 일단 왕당파로 분류되는 사람도 진골귀족임에는 틀림없다. (3a, b)에서 왕당파는 딸을 왕비로 들일 때 이찬[최종관등은 각간]이었던 김순원과 그의 딸 소덕왕후로 대표된다. 진골귀족세력은 엄정왕후로 상징된다. 엄정왕후의 친정 아버지는 딸을 왕비로 들일 때는 아찬[최종관등은 소판]이었던 김원태이다.[4] 김순원도 김원태도 진골귀족이다. 그러므로 진골 귀족세력 대 왕당파의 대립은 성립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진골귀족을, 진골귀족 가운데 왕당파를 제외한 인물들이라고 쳐서 반왕당파로 보고 이 대립을 왕당파 대 반왕당파의 대립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기백(1974)에서는[5] '전제주의적 왕권을 보다 견고히 다지려는 신라 중대적 왕당파와 그러한 세력을 꺾고자 하는 하대적 반왕당파가 서로 맞서서 반목을 거듭하'였는데, 이 대립에서 신충을 '왕당파의 거두'로 간주하였다. 이에 토대를 두고 박노준(1982)는 신충을 왕당파로, 김순원을 반왕당파[=외척]으로 분류하고 있다.[6] 동일한 김순원이 (3)에서는 왕

4) 『삼국사기』 권 제8 「성덕왕」의 720년[성덕왕 19년] 3월 소덕왕후가 성덕왕과 혼인할 때의 김순원의 관등은 이찬이다. 『삼국유사』 권 제1 「왕력」에는 소덕왕후의 아버지를 '順元 角干'이라고 적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720년 혼인 당시에는 이찬이었으나 최종적으로는 각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김원태의 경우는 『삼국사기』 권 제8 「성덕왕」의 704년[성덕왕 3년] 조의 엄정왕후 혼인에서는 승부령 '蘇判 金元泰'라 하고 『삼국유사』 권 제1 「왕력」에서는 '元太 阿干'이라 하였다. 김원태가 엄정왕후 혼인 시인 704년에 소판이었는데 최종적으로 아간으로 강등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간이 딸을 왕비로 들이던 때의 관등이고 소판이 최종 관등으로 보이지만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 이 경우 두 사서가 왜 이렇게 일관성 없이 관등을 적고 있는지 알 수 없다.

5) 이기백, 앞의 책, 234~236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6) 박노준, 『신라 가요 연구』, 열화당, 1982, 141~156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 책은 지난 30여년 이상 필자의 향가에 대한 사고를 성숙하게 해 준 지남서가 되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30 13:26(KST)

당파로 분류되었는데, 이 설명에서는 반왕당파로 분류되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분류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한다. 신라중대에 왕당파, 진골귀족세력, 반왕당파 사이의 대립은 없었다. 아니 그런 대립에

었다. 그 책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그 책에도 오류가 적지 않다. 최근에 와서 필자는 그 책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많다. 「원가」 논의와 관련된 것 몇 가지만 열거한다. 첫째, 그 책은 효성왕 승경을 소덕왕후의 아들이라고 본다. 그러나 필자는 승경이 엄정왕후의 친아들이라고 본다. 역사 기록에 적힌 왕의 모가 법적인 모인지 생모인지 구분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연구들에서는 이 문제가 경시되었다. 둘째, 그 책은 엄정왕후와 성정왕후가 동일 인물로 성덕왕의 선비라고 본다. 그러나 필자는 성정왕후와 엄정왕후는 동일 인물이 아니고 성정왕후는 효소왕의 왕비이고 엄정왕후가 성덕왕과 704년에 혼인한 김원태의 딸이라고 본다. 셋째, 그 책은 수충을 성정왕후[=엄정왕후]의 아들로 보고 승경을 소덕왕후의 아들로 보아 이 대립이 성덕왕의 선비 성정왕후 소생과 후비 소덕왕후 소생의 대립으로 본다. 그러면 당연히 승경은 김순원의 외손자로서 친당파인 수충과 대립한 것이 된다. 그러나 필자는 수충은 효소왕과 성정왕후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서 효소왕의 '왕자 수충'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효소왕이 승하하고 난 뒤에 왕위를 오대산에 가서 승려가 되어 있던 삼촌 효명[성덕왕]에게 빼앗겼다. 그리고 중경, 승경은 성덕왕과 엄정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소덕왕후는 성덕왕과의 사이에서 헌영을 낳았다. 736년[성덕왕 35년] 가을의 잣나무 아래의 맹약, 그리고 737년[효성왕 즉위년]의 「원가」 창작 시기의 정치적 대립은 엄정왕후의 친아들 승경 대 소덕왕후의 친아들 헌영의 대립이다. 「원가」는 형 승경[효성왕]과 아우 헌영[경덕왕]이라는 이복형제가 왕위를 놓고 골육상쟁을 벌이는 와중에서 태어난 것이다. 외가가 약한 효성왕이 우여곡절 끝에 왕위에 있은 지 5년 3개월 만에 사망한 후 화장당하여 동해에 산골되고, 김순원 집안[자의왕후, 소덕왕후, 혜명왕비의 친정]이라는 막강한 외가를 배경으로 하는 헌영이 뒤를 이어 경덕왕으로 즉위하였다. 아마도 혜명왕비, 효신, 신충 등에 의한 효성왕 시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 史實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 그것이 밝혀지지 않음으로써 국사학계는 신라 중대 정치사를 제대로 기술하지 못하였고, 국문학계는 향가 「원가」의 창작 배경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30 13:26(KST)

의하여 설정된 정치권력구도로는 신라 중대 정치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특히 효성왕 때 일어난 상식을 벗어난 정치적 사건들은, 이런 구도로는 전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것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은 「원가」 창작의 정치적 배경이 해명되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

둘째로 지적할 것은 (3b)에서 출궁되었다고 말하는 왕비는 엄정왕후가 아니고 성정왕후라는 사실이다.

(4)a. 714년[성덕왕 13년] 봄 2월 … 왕자 김수충을 당으로 파견하여 숙위하게 하니 현종은 집과 비단을 주고 써 총애하며 조당에서 연회를 베풀어 주었다[十三年 春二月 … 遣 王子金守忠入唐宿衛 玄宗賜宅及帛以寵之 賜宴于朝堂].

b. 715년[동 14년] 12월 … 왕자 중경을 봉하여 태자로 삼았다[十二月 … 封王子重慶爲太子].

c. 716년[동 15년] 3월 … 성정*{*다른 데서는 엄정이라고도 하였다.*}*왕후를 내보내는데 비단 500필과 밭 200결, 조곡 1만 석, 주택 1구역을 주었다.[三月 … 出成貞*{*一云嚴貞*}*王后 賜彩五百匹田二百結租一萬石宅一區]. 주택은 강신공의 옛집을 사서 주었다[宅買康申公舊居賜之].

d. 717년[동 16년] 6월에 태자 중경이 죽어 시호를 효상이라 하였다[六月 太子重慶卒 謚曰孝殤]. … 가을 9월에 당으로 들어갔던 대감 수충이 돌아왔는데 문선왕[孔子], 십철, 72 제자의 도상을 바치므로 그것을 태학에 보냈다[秋九月 入唐大監守忠廻 獻文宣王 十哲 七十二弟子圖 卽置於大學]. <『삼국사기』 권 제8 「신라본기 제8」 「성덕왕」>

(4c)에서 보듯이 '出成貞*{*一云嚴貞*}*王后[성정왕후가 출궁하였다].'고 하였지 '엄정왕후가 출궁하였다.'고 한 적이 없다. *{*一云嚴貞*}*이라는 세주는 『삼국사기』의 편찬자가 성정왕후와 엄정왕후에 대하여 정확하게 모르고 붙인 것이다. 그들은 기록에 성덕왕의 왕비가 성정왕후, 엄정왕후, 소덕왕후 세 사람으로 나오니 성정왕후와 엄정왕후가 동일인인 줄 착각하였다. 그러나 이 둘은 동일인이 아니다. 분명한 것은 출궁된 왕비는 성정왕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30 13:26(KST)

후이다. 『삼국사기』의 편찬자가 성덕왕의 왕비라고 착각하고 있던 이 성정왕후를 다른 기록에서는 엄정왕후로도 적었다는 것이 *{一云嚴貞}*이라는 세주의 의미이다.

(3b)가 옳다고 하려면 '成貞=嚴貞'이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증명되지 않는다. 避諱의 경우로 본다고 하더라도 '成'을 피휘하여 '嚴'으로 썼다는 말을 할 수는 없다. '成'과 '嚴'은 엄연히 다른 글자이다. 서정목(2015e)에서[7] 이미 증명한 대로 성정왕후는 효소왕의 왕비이고, 엄정왕후는 성덕왕의 선비로서 이 두 왕비는 서로 다른 사람이다.

물론 엄정왕후의 폐비나 사망 기사는 『삼국사기』에 없다. 그러나 이것이 성정왕후가 엄정왕후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이것을 문제 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엄정왕후의 사망이나 폐비 기록이 없는데 왜 이찬 순원의 딸 소덕왕후가 720년 3월에 왕비가 되는가 하는 의문 때문이다.[8] 그러나 『삼국사기』에 왕비의 사망과 폐비가 꼬박꼬박 기록되는 것은 아니다. 737년 2월 이후에 즉위한 효성왕도, 박 씨 왕비의 폐비나 사망 기사 없이, 739년 3월 김순원의 손녀[진종의 딸]인 혜명왕비를 맞이하였다.[9] 742년 5월 이후 즉위한 경덕왕도, 선비 이찬 순정의 딸의 폐비나 사망에 관한 기록 없이 743년 4월에 서불한 김의충의 딸을 들여 왕비로 삼았다.[10]

---

7) 서정목, 「『삼국사기』의 '원자'의 용법과 신라 중대 왕자들」, 『한국고대사탐구』 21호,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5e를 참고하기 바란다.

8) 물론 소덕왕후가 들어오려면, 엄정왕후는 그 후에 언젠가는 폐비되거나 사망하였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716년 3월에 출궁하는 그 왕비는 성정왕후이지 엄정왕후가 아니라는 것이다.

9) 『삼국사기』 권 제9 「효성왕」 3년[739년] 조의 '3월 이찬 순원의 딸 혜명을 들여 비로 삼았다[三月 納伊湌順元女惠明爲妃].'의 '순원'은 '眞宗'의 오기이다. 『삼국유사』 권 제1 「왕력」 「효성왕」 조의 '진종 각간'이 혜명왕비의 부친인 것이 확실하다. 서정목, 「신라 제34대 효성왕의 계비 혜명왕비의 아버지에 관하여」, 『진단학보』 126호, 진단학회, 2016b에서 논증하였다.

10) 그런데 『삼국유사』 권 제2 「기이 제2」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 조에 의하면 '王 玉莖長八寸 無子 廢之 封 沙梁夫人 後妃滿月夫人 諡景垂太后 依忠角干之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30 13:26(KST)

그러므로 엄정왕후의 폐비나 사망 기사가 없다고 해서 소덕왕후가 들어오기 전에 출궁된 성정왕후가 엄정왕후여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만약 (3b)처럼 716년 3월에 엄정왕후가 출궁하였다고 보면, (3c)의 소덕왕후가 720년 3월에야 성덕왕과 혼인하는 것이 이상하다. 그러면 만 4년 동안 중전 자리가 비어 있었던 것으로 된다. 그런 경우가 일반적일까? 그렇지 않다. 신문왕은 681년 8월 8일 장인 김흠돌을 모반으로 죽이고 왕비를 아버지의 난에 연좌시켜 폐비하였다. 그리고 683년 5월 7일 김흠운의 딸을 정식으로 왕비[신목왕후]로 들였다. 채 2년도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경우는 실제로는 신문왕이 태자 시절부터 신목왕후와 동거생활을 하며 이홍, 보ㅅ내, 효명을 낳아 놓고 있었기 때문에 중전 자리가 비어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효성왕은 박 씨 왕비가 738년 2월 당 나라로부터 책봉받은 지 불과 1년 1개월 만인 739년 3월에 김진종의 딸 혜명을 왕비로 맞이하였다. 경덕왕도 742년 5월 이후 즉위할 때 이찬 순정의 딸이 왕비로 기록되어 있다. 그로부터 1년도 안 되어 743년 4월에 김의충의 딸[만월부인]을 새 왕비로 들인다. 그러므로 유독 성덕왕만 첫 왕비를 폐비시키고 4년 동안 중전 자리를 비웠다가 새 왕비를 맞이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이 아니다. 이 4년 동안의 상당 기간은 엄정왕후가 중전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4c)에서 보듯이 성정왕후의 출궁 시에는 위자료가 지급되었음이 『삼국사기』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다. 얼른 보아도 많은 양이다. 단순한 폐비는 아니다. 폐비된 다른 어떤 왕비에게도 위자료를 주었다는 기록은

女也[왕은 옥경이 길이가 8촌이나 되었다. 사량부인이 아들이 없어 그를 폐하고, 후비 만월부인을 봉하였는데 시호는 경수태후로 의충 각간의 딸이다(이런 뜻을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의 원문은 '無子' 앞에 있어야 할 '沙梁夫人'이 '封' 뒤로 가 있다)].'고 한 데서 보듯이 김순정의 딸은 폐비되었다. 그러나 『삼국사기』는 이에 대하여 적지 않았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30 13:26(KST)

없다. 더욱이 대부분의 폐비 사건은 사유가 '無子'라고 적혀 있다. 그런데 이 성정왕후에게는 보기에 따라 (4a)에서 보는 아들 수충이 있고, 엄정왕후에게는 확실하게 (4b)의 중경이라는 왕자가 있었다. 이 출궁의 사유가 '무자'였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성정왕후 출궁은 폐비 사건이 아니다. 물론 엄정왕후가 출궁된 것은 더더욱 아니다.

만약 성정왕후가 엄정왕후와 동일인이라면 태자 중경은 그 왕비의 아들일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런데 어떤 왕비가 아들이 태자로 책봉되었는데 그 직후에 출궁한다는 말인가? 또 어떤 왕이 있어 태자로 책봉된 아들의 어머니를 내쫓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곧 내어 쫓을 왕비의 아들을 그 직전에 태자로 책봉하는 바보 같은 조정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 태자가 왕이 되는 날 이 왕비 출궁에 관여한 신하들은 모두 죽게 될 것이다. 이 왕비의 출궁 사건은 절대로 태자 중경의 어머니의 출궁으로 볼 수 없다.

(4a)에서는 김수충이 당 나라로 숙위를 갔다. 숙위는 당 나라 황제 근위 부대에 복무하는 것이다. 20여세는 되어야 갈 수 있을 것 같다. (4b)에서는 중경이 태자로 책봉되었다. 이 중경은 성덕왕의 친아들일 것이다. 아버지가 704년에 혼인했으니 이때 많아야 10여세이다. 수충보다 어리다. 이 상황에서 (4c)의 성정왕후 출궁은, 성덕왕의 친아들 중경이 태자로 책봉되고 그 형인 수충이 태자로 책봉되지 않은 것에 항의하던 성정왕후를 대궁 밖으로 내보내었다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그러면 수충은 성덕왕의 친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성정왕후도 성덕왕의 왕비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4d)에는 수충이 귀국하였음을 적었다. 동생일 것 같은 중경이 태자로 책봉되고, 어머니일 것으로 보이는 성정왕후가 출궁된 소식을 접한 수충이 귀국한 것이다.

이 중경의 태자 책봉은 중경과 수충 사이에 출신 배경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수충은 성덕왕의 친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성정왕후도 성덕왕의 정식 왕비가 아니다. 이것이 상식이다. 수충은 누구의 아들이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30 13:26(KST)

고 성정왕후는 누구의 왕비일까? 33대 성덕왕 후의 왕인 34대 효성왕의 아들이고 왕비일까? 어림없다. 성덕왕 앞으로 가야 한다. 그러면 31대 신문왕? 아니다. 성덕왕이 신문왕의 아들이고 신목왕후가 신문왕의 왕비이다. 남은 것은 32대 효소왕뿐이다. 수충은 효소왕의 친아들이고, 그의 어머니 성정왕후는 효소왕의 왕비이다. 이 모자는 효소왕 사후 숙부, 시동생인 성덕왕의 보살핌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11] 결국 삼촌 효명의 즉위로 아버지의 왕위를 숙부 성덕왕에게 빼앗겼고, 또 중경의 태자 책봉으로 왕위를 사촌 동생에게 빼앗기게 된 것이 효소왕의 왕자 김수충이다. 그의 어머니로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손아래 동서에게 빼앗기고 시조카에게 내어준 꼴이 되었다. 이것이 형사취수 제도가 초래하는 궁극적 현상이다. 아들 없는 상태로 죽은 형이야 그 형수만 잘 보살피면 되지만[그것도 제 아내의 투기로 만만하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아들 있는 형이 죽어 형사취수하게 되면 그 다음 세대의 상속 문제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는 것이다.

(4a~d)까지의 기사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 외에는 없다. 다른 온갖 가능성을 다 타진해 보았지만 『삼국사기』의 기록에서 아버지가 불분명한 '왕자 김수충'과 남편이 불분명한 '왕비 성정왕후'에 관하

11) 성정왕후는 효소왕 사후 성덕왕이 즉위하고 나서 대궁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성정왕후가 낳은 효소왕의 왕자 김수충이 당 나라에 숙위를 가 있는 사이에 성덕왕이 엄정왕후의 친아들 중경을 태자로 책봉하는 바람에 이에 항의한 성정왕후가 쫓겨난 것이 이 성정왕후 출궁 사건이다. 이 *{一云 嚴貞}*이라는 註는 성정왕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성덕왕의 왕비가 다른 곳에서는 '엄정왕후'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적은 것이다. 성정왕후는 효소왕 사후 성덕왕 즉위 후에 형이 죽어 아우가 형수를 책임진[兄死娶嫂] 왕비이다. 수충이 성덕왕의 왕자처럼 되어 있는 것도 숙부 성덕왕의 아들처럼 자랐기 때문이다. 소덕왕후의 입궁이 추진되던 시기에 수충은 도로 당 나라로 가서 불교에 귀의하였다. 그가 金喬覺이라는 법명으로 수도하여 세계 최초의 등신불[=육신불]이 되었다. 中國 安徽省 池州 靑陽의 九華山에 그의 육신불이 보전되어 있고 그의 99세 열반을 기념하는 99미터의 동상이 구화산에 서 있다. 서정목, 앞의 책(2016a:제5장)에서 자세히 논의하였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30 13:26(KST)

여 해명할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었다. (4)의 기사를 읽으면 이 왕자 수충은 누구의 아들이며 성정왕후는 누구의 왕비일까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의문이다. 그러고 나면 온갖 자료를 샅샅이 뒤지게 되어 있다. 그것이 문헌 연구이고 문헌 비평[Textual Criticism]이다. 역사 기록의 디테일을 읽지 않으면, 읽어도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면 '엄정왕후의 출궁사건'이라는 이런 기가 막힌 無知의 誤解가 생긴다.

셋째로 지적할 것은 이 논문의 주제로부터는 약간 벗어나지만 (3c)의 '浿江 이남 지역의 획득'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틀려 있다는 점이다. 마치 패강 이남 지역을 성덕왕이 당 나라와 싸워서 획득해 온 것처럼 적고 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것은 당 나라 현종이 사신 김의충을 통하여 패강 이남의 땅을 신라에 준 것을 적은 것이다. 이 일이 있은 해는 (5c)에서 보듯이 735년[성덕왕 34년] 2월이다.

(5)a. 733년[성덕왕 32년] 가을 7월 당 나라 현종은, 발해와 말갈이 바다를 건너 등주를 쳐들어오자 태복원외경 김사란을 귀국시켜 (성덕)왕에게 개부의동삼사영해군사를 더하여 주고 군대를 출발시켜 말갈의 남쪽 국경을 공격하게 하였다[三十二年 秋七月 唐玄宗 以渤海靺鞨越海入寇登州 遣太僕員外卿金思蘭歸國 仍加授王爲開府儀同三司寧海軍使 發兵擊靺鞨南鄙]. 한 길이나 되는 큰 눈을 만나고 산길은 험하여 무사와 병사들의 죽은 자가 반이 넘었고 이룬 공 없이 돌아왔다[會大雪丈餘 山路阻隘 士卒死者過半 無功而還].

b. 734년[동 33년] 정월 … 입당 숙위하는 좌령군위원외장군 김충신이 당 제에게 글을 올려 말하기를[入唐宿衛左領軍衛員外將軍 金忠信上表曰], 신이 받들고자 하는 처분은 신으로 하여금 옥절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병마를 일으켜 말갈을 토벌하여 없애는 것이옵니다[臣所奉進止令臣執節本國 發兵馬討除靺鞨]. … 폐하께 엎드려 바라기는 신이 환국함에 있어 부사의 직책을 신에게 주시어 천자의 뜻을 다시 특수한 후예에게 선포하게 함으로써 어찌 생각컨대*{구본에는 *稚라 했으나 대개 訛이*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30 13:26(KST)

*다;}** 이 노여움을 더욱 떨치지 않겠습니까[伏望陛下 因臣還國 以副使假臣 盡將天旨 再宣殊裔 豈惟**{舊本作稚 蓋訛也}**斯怒益振].

c. 735년[동 34년] 봄 정월[三十四年 春正月] … 김의충을 당에 보내어 하정하였다[遣金義忠入唐賀正]. 2월 부사 김영이 당 나라에서 사망하여 광록소경을 추증하였다[二月 副使金榮 在唐身死 贈光祿少卿]. 의충이 돌아올 때 (황제가) 칙령으로 패강 이남의 땅을 하사하였다[義忠廻勅賜浿江以南地]. <『삼국사기』 권 제8 「신라본기 제8」 「성덕왕」>

그런데 (5a)에서 보듯이 733년 7월에 발해가 말갈과 더불어 당 나라 등주를 침공하였다. 당 현종은 金思蘭을 귀국시켜 성덕왕에게 開府儀同三司寧海軍使의 벼슬을 더해 주고 말갈의 남변을 공격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성덕왕은 군사를 내었으나 큰 눈이 와서 군사를 되돌리고 말았다.[12] (5b)에서는 734년 정월에 숙위하고 있던 金忠信이 당 현종에게 표를 올려 자신에게 副使를 주면 귀국하여 말갈을 쳐부수어 황은에 보답하겠다고 하였다.

당 현종이 패강 이남의 땅을 신라에 준 것은 신라가 말갈의 배후를 공격한 데 대한 보답이다. 이를 거꾸로 말하면, 발해와 말갈이 당 나라 등주를 공격하지 않았다면 당 나라가 패강 이남 땅을 신라에 줄 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성덕왕이 획득한 것이 아니라, 발해 덕분에 얻게 된 것이고 신라 군사를 당 나라와 발해의 싸움에 용병처럼 내보낸 것이다.

필자가 이 대목을 여기에 넣는 것이 주제 일탈이듯이 (3c) 속에 느닷없이 '패강 이남 지역의 획득'을 넣는 것도 주제 일탈이다. '000 등을 통하여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꾀하려 하였다.'의 '000'에 '패강 이남 지역의 획득'을 넣는 것은 객관적 역사 기술이 아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성덕왕의

12) 이 일은 (5b)의 당 나라 조정에서 있었던 일과의 선후 관계를 생각해야 한다. (5b)가 더 먼저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김충신이 귀국하여 이 발해의 배후를 치는 군대의 사령관을 맡았을 가능성이 있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30 13:26(KST)

전제 왕권 확립을 주장하고 싶었겠지만 그것은 전제왕권 확립에 대한 증거가 못 된다. 그만큼 전제왕권 확립이란 가설은 논증되기 어려운 가설이다. 70여년을 거기에 매달렸지만 확립되지 않는 가설이라면 그것은 버려야 마땅한 가설이다.

넷째로 지적할 것은 태자 승경을 소덕왕후가 낳았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3c)에서 말하는 성덕왕 19년[720년]에 성덕왕과 혼인한 왕비는 소덕왕후이다. '3년 후 김순원의 딸에게서 난 아들을 3세의 어린 나이로 太子로 책봉하여'라는 말은 724년 봄에 태자로 책봉된 '왕자 승경'을 소덕왕후가 낳은 아들이라고 보고 쓴 것이다. 그러나 성덕왕의 태자 승경을 소덕왕후가 낳았다는 것은 증명되지 않는다.

소덕왕후가 승경을 낳지 않았다면 승경이 3세에 태자로 책봉되었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소덕왕후가 승경을 낳지 않았다면 승경의 나이는 더 많아진다. 즉위 시의 나이도, 승하 시의 나이도 새로 계산해야 한다. 그리고 승경을 낳은 왕비가 소덕왕후가 아니고 엄정왕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이 시기의 정치권력구도는 새로 설정되어야 한다. 실제로 이 시기에 대립하고 있던 세력은, 엄정왕후를 지지하는 세력과 소덕왕후를 지지하는 세력인 것이다. 왕당파 대 진골귀족세력의 대립이나 왕당파 대 반왕당파[외척]의 대립 같은 그런 거대 담론이 통하는 대립이 아니다.

Ⅲ에서 보듯이 태자 승경은 소덕왕후의 친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그는 3세에 태자로 책봉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경덕왕이 되는 헌영은 소덕왕후의 친아들이다. 효성왕과 경덕왕은 이복형제일 것이다. 그러므로 신라 중대 김원태의 딸 엄정왕후와 김순원의 딸 소덕왕후의 대립은 왕당파와 진골 귀족 세력의 대립이 아니다. 엄정왕후, 효성왕을 지지하는 세력과 소덕왕후, 경덕왕을 지지하는 세력의 대립이다.

(3)의 기술은 이 글의 筆執者가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읽을 수 있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30 13:26(KST)

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그리하여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소양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만약 국가기관에서 펴낸 이 『한국사』의 내용이 현대 한국의 신라중대 정치사 연구자들이 동의한 것이라면 현대 한국에서 이루어진 신라중대 정치사 연구는 믿기 어려운 것이 된다. 그 논저들은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내용과 동떨어져 있고 논증되지 않는 가설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다른 분야 연구자들은 어쩔 수 없이 연구자 자신이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원전으로 읽고 스스로 연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자신의 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Ⅲ. 효성왕의 생모는 소덕왕후가 아니고 엄정왕후일 가능성이 크다.

1. 소덕왕후는 효성왕의 법적 어머니로 해석된다.

이제 명제 (1)이 옳음을 증명하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기로 한다. (1)이 옳으면 (3)은 명백하게 틀린 것이다. (3a, c)가 말하는 왕당파의 상징, 제33대 성덕왕의 후비 김순원의 딸은 (6)에서 보듯이 『삼국유사』 권제1 「왕력」 「성덕왕」 조를 보면 占勿王后이고, 죽어서 炤德이라는 諡號를 받았다. 이에 비하여 (3b)에서 말하는 진골귀족세력의 상징, 성덕왕의 선비 원태 아간의 딸은 살아서는 陪昭王后이고 죽어서는 嚴貞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이 두 왕비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두 정치 세력이 내세운 왕비이다.

(6) 제33 성덕왕, 이름은 흥광이다[第三十三 聖德王 名興光]. 본명은 융기이다[本名 隆基]. 효소왕의 동모제이다[孝昭之母弟也]. 선비는 배소왕후이다[先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30 13:26(KST)

妃陪昭王后]. 시호는 엄정이다[諡嚴貞]. 원태 아간의 딸이다[元太阿干之女也]. 후비는 점물왕후이다[後妃占勿王后]. 시호는 소덕이다[諡炤德]. 순원 각간의 딸이다[順元角干之女]. <『삼국유사』 권 제1「왕력」「성덕왕」>

성덕왕 즉위 직후인 704년에 혼인한 엄정왕후의 간택은, 다음에서 보는 대로 성덕왕을 즉위시킨 國人이 주관한 일일 것이다. 700년 5월의 '경영의 모반'으로 파면된 중시 김순원은 이 혼사에 관여할 처지가 못 된다. 700년 6월 1일에 신목왕후가 사망하였으므로 이 혼인을 주관하였을 국인은 성덕왕의 어머니 신목왕후가 아니다. 아마도 이 국인은 신목왕후의 어머니[요석궁의 홀로 된 공주, 속칭 요석공주]와 그 형제들인 지경, 개원 등이었을 것이다. 이를 요석공주 후계 세력이라 부르기로 한다.

이에 비하여 720년 3월에 혼인한 소덕왕후의 간택에는 김순원이 관여하였다. 이때에는 김순원이 생존하였을 것이다. 그는 720년에는 이찬이었지만 (6)에서 보듯이 각간으로 관등이 올라 있다. 살아서 각간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720년 3월 소덕왕후를 왕비로 들일 때에는 순원은 이찬으로 살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김순원은 자의왕후의 동생으로 보인다.

<[심사 후 추가] 서정목 앞의 논문(2016b)는 김충신이 성덕왕의 조카[王姪] 志廉을 '從姪[7촌 조카]'라고 지칭하는 것, 효신공이 혜명왕비의 친정 족인으로서 후궁 영종의 딸 살해에 책임이 있다는 것, 혜명왕비가 김순원의 손녀라는 것으로부터, 김충신이 효신과 함께 김순원의 손자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지렴은 성덕왕의 아우 김사종의 아들로 보인다. 그러면 김충신은 자의왕후의 손자들인 효소왕, 성덕왕, 김사종과 6촌[(再)從兄弟]이다. 문무왕의 친가와 처가인 이 두 집안의 4촌은 자의왕후의 아들인 신문왕과 김순원의 아들인 김진종이다. 그러면 김순원과 자의왕후는 오누이 사이인 것이다. 이 종질이라는 친족 지칭어를 통하여 따져 보면 김순원과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30 13:26(KST)

자의왕후는 오누이 관계임에 틀림없다.> 이 세력을 위험하긴 하지만 편의상 자의왕후 후계 세력이라 부르기로 한다.[13)]

엄정왕후는 신문왕비 신목왕후의 (어머니의) 후계 세력이고 소덕왕후는 문무왕비 자의왕후의 후계 세력이다. 이 대립은 시어머니 자의왕후와

13) 김순원이 波珍飡[바돌칸=海干] 善品의 아들이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필사본『화랑세기』에만 있다. 자의왕후가 파진찬 선품의 딸이라는 것은『삼국사기』,『삼국유사』가 동일하다. 그러므로 자의왕후와 순원이 남매 사이라는 것은 위서 논란이 있는 필사본『화랑세기』를 통해서만 성립된다. 일말의 불안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필자는 95% 이상의 확률로 이 추정이 옳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주에 주목하였던지, 심사 의견 중에 '필사본『화랑세기』의 사료적 가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의견이 있었다. 필자는 아직 그 필사본이 진서를 필사한 것인지, 위서인지의 논의에 참여할 만한 수준은 못 된다. 다만 신라 중대 '김흠돌의 모반'의 원인인 효소왕 이공의 혼전, 혼외 출생과 그 후의 일들, 그리고 왕실과 풍월주의 족보는『삼국사기』,『삼국유사』의 기록과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 이 글뿐만이 아니고 필자의 모든 논저에는 김순원이 자의왕후의 동생이고, 김오기가 자의왕후의 여동생 운명의 남편이라는 것이 기본으로 깔려 있다. 그런데 譜學이라 할 것도 없는 이 간단한 計寸으로도 김순원과 자의왕후가 오누이라는 것이 증명된다. 그러면『삼국사기』,『삼국유사』가 자의왕후가 파진찬 선품의 딸이라고 한 것과 연결시키면 자동적으로 김순원이 선품의 아들이라는 것이 나온다. 그런데『화랑세기』는 김순원이 선품의 아들이고, 자의왕후와 운명이 선품의 딸이며, 김오기가 운명의 남편이고, 김오기와 운명의 아들이 김대문이라고 되어 있다. 나아가 김오기가 자의왕후의 명으로 호성장군이 되어 북원 소경[원주]의 군대를 이끌고 徐羅伐로 회군하여 와서 호성장군 진공과 맞서 싸워 월성을 깨고 '김흠돌의 모반'을 진압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 싸움에서 김흠돌, 진공, 흥원 나아가 김군관이 이겼으면 김오기는 역적이 되고 이 싸움은 '김오기의 모반'이 되었을 것이다. 신라의 왕위는 신문왕 아닌 다른 왕으로 넘어가고 통일 신라는 여기서 끝났을지도 모른다. 신라의 역사는 그들의 처지에서 김오기 일당을 악독한 무리로 모는 방향으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역사는 김흠돌이 졌기 때문에 모든 역사 기록이 김오기, 김순원, 심지어 성덕왕, 경덕왕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필자의 역사관이다. 권력 다툼에서 지면 역적이 되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 된다. 이런 면에서 필사본『화랑세기』내용의 사료적 가치를 필자는 인정하는 것이다. 이 글 맨 뒤의 보주에서 더 자세한 생각을 밝히기로 한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30 13:26(KST)

며느리 신목왕후, 또는 올케[자의왕후]와 시누이[요석공주]의 후계 세력들의 대립인 것이다.

그런데 (3)이 주장하는 대로 되려면, (3c)에 따르면 3세(?)에 태자로 책봉되어 성덕왕 사후에 즉위하는 제34대 효성왕이 소덕왕후의 친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모든 역사적 사실은 제34대 효성왕이 소덕왕후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제34대 효성왕 승경의 법적인 어머니야 당연히 성덕왕의 최종 왕비인 소덕왕후이다. 그러나 성덕왕은 최소한 3명의 왕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누구의 왕비인지 정체가 불분명한 成貞王后, 성덕왕의 선비 엄정왕후, 성덕왕의 후비 소덕왕후가 그들이다. 그러므로 성덕왕의 아들들이 각각 어느 왕비의 소생인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7), (8)에서 보듯이 『삼국사기』, 『삼국유사』 모두에 효성왕의 모는 소덕왕후로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이 효성왕의 생모가 소덕왕후라는 것을 적은 것일까? 아니면 법적 어머니인 성덕왕의 최종 왕비를 적은 것일까? 소덕왕후가 효성왕의 생모인지 아닌지는 논증되어야 하는 명제이지 기록 그 자체에만 의존하여 정할 일이 아니다. 조범환(2011a)처럼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기록 그대로 효성왕의 母를 소덕왕후라고 하면, 그 모가 생모인지 법적 모인지 불분명해진다. 만약 효성왕의 생모가 소덕왕후라면 효성왕과 그의 아우 헌영의 왕위 다툼을 설명할 타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효성왕의 모가 누구인지를 따질 것이 아니라, 효성왕의 생모가 누구인지를 따져야 제대로 된 역사 연구가 된다.

(7) (737년) 효성왕이 즉위하였다[孝成王立]. 휘는 승경이다[諱承慶]. 성덕왕 제2자이다[聖德王第二子].[14] 모는 소덕왕후이다[母炤德王后]. <『삼국사기』

14) 효성왕이 성덕왕의 제2자라는 것도 주목된다. 실제로 이 시기 성덕왕의 아들로 보이는 왕자는 중경, 승경이고 중경의 형이 있었다고 보면 승경은 세 번째 아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30 13:26(KST)

권 제9「신라본기 제9」「효성왕」>

(8) 제34 효성왕[第三十四 孝成王]. 김 씨이다[金氏]. 이름은 승경이다[名承慶]. 부는 성덕왕이다[父聖德王]. 모는 소덕태후이다[母炤德大后]. 왕비는 혜명왕후이다[妃惠明王后]. 진종 각간의 딸이다[眞宗角干之女也] <『삼국유사』 권 제1「왕력」「효성왕」>

효성왕의 생모가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성덕왕의 즉위 과정과 성덕왕의 혼인 과정, 그리고 자녀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9)는 성덕왕의 즉위 시기의 기사이다.

(9)a. 702년[효소왕 11년] 7월에 왕이 승하하였다[十一年 秋七月 王薨]. 시호를 효소라 하고 망덕사의 동쪽에 장사지냈다[謚曰孝昭 葬于望德寺東]. <『삼국사기』 권 제8「신라본기 제8」「효소왕」>

b. [702년] 성덕왕이 즉위하였다[聖德王立], 휘는 흥광이다[諱興光]. 본명은 융기였는데 현종의 휘와 같아서 선천에 고쳤다[本名隆基 與玄宗諱同 先天中改焉]. *{『당서』는 *김지성이라 하였다[唐書言 金志誠]*}*. 신문왕의 제2자이고 효소왕과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아우이다[神文王第二子 孝昭同母弟也]. 효소왕이 승하하였다. 아들이 없어 국인이 즉위시켰다[孝昭王薨 無子 國人立之]. 당의 측천무후는 효소왕이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는 그를 위하여 애도식을 거행하고 조회를 2일 동안이나 하지 않았다[唐則天聞孝昭薨 爲之擧哀 輟朝二日]. 사신을 파견하여 조위하고, 왕을 책

들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불분명한 왕자 수충까지 합치면 네 번째 왕자이다. 『삼국사기』는 원비의 맏아들을 원자, 형이 죽고 살아 있는 아들 가운데 가장 어른 아들을 장자, 원래부터 둘째 아들을 차자, 형들이 죽고 살아 있는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을 제2자 등으로 구분하여 적고 있다(서정목, 앞의 논문(2015e) 참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여기서의 제2자는, 兄死娶嫂에 의하여 효소왕의 친아들이지만 아버지 사후 성덕왕의 양자처럼 기록된 수충을 제1자, 승경을 제2자로 헤아린 것으로 보인다. 성덕왕도 『삼국사기』에 신문왕의 제2자라고 적혀 있다. 그렇지만 그의 동모형으로는 효소왕, 보ㅅ내태자가 있다. 그러므로 제2자는 사망한 효소왕을 빼고 보ㅅ내태자와 성덕왕을 헤아려서 제2자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30 13:26(KST)

봉하여 신라왕으로 삼고, 좇아 형의 장군도독의 호를 이어받게 하였다[遣使弔慰 册王爲新羅王 仍襲兄將軍都督之號]. <『삼국사기』 권 제8「신라본기 제8」「성덕왕」>

(9a, b)를 연결하여 읽으면 성덕왕은 702년에 느닷없이 즉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에는 성덕왕의 즉위 과정에 대한 기록이 '孝昭王薨 無子 國人立之[효소왕이 승하하였다. 아들이 없어 國人이 (성덕왕을) 즉위시켰다].'로만 적혀 있다.[15] 제32대 효소왕 시기에 그가 태자로 책봉된 기록도 없다. 이것은 효소왕이 700년 5월에 일어난 '경영의 모반'으로 702년에 갑자기 승하하였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그러므로 제33대 성덕왕

15) 이 기록은 신뢰하기 어렵다. 효소왕의 아들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 기록 때문에 '수충'과 성정왕후의 정체가 암흑 속에 묻혔다. 그에 따라 중국에서는 세계 최초의 등신불[=육신불] 김교각 보살이 성덕왕의 아들로 둔갑되어 있다. 수충은 성덕왕의 양자이지 친자가 아니다. 성정왕후와 수충, 이들은 효소왕의 왕비이고 왕자이다. 『삼국유사』 권 제5「신주 제6」「혜통항룡」 조에는 692년에 효소왕의 왕녀가 병이 들어 혜통이 치료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효소왕에게 아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기록 그대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다. 성덕왕의 즉위와 관련한 신라사는 철저하게 이긴 자의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다. 이긴 자는 소덕왕후의 친정 세력이다. 이 세력은 자의왕후의 친정 김순원 집안 세력이고 자의왕후의 여동생 운명의 남편 김오기, 그 아들 김대문 집안과의 연합 세력이다. 김순원 집안 후계자가 김진종, 그 아들 충신, 효신이다. 김오기 집안 후계자가 김대문, 그 아들이 신충, 의충이다. 이에 비하여 진 자는 신목왕후(의 어머니 요석궁의 홀로 된 공주)의 후계 세력이다. 성정왕후, 엄정왕후, 수충, 효성왕 등이 이 세력이다. 신문왕의 원자 김사종은 이 싸움에 새우 등이 터져 728년 7월 당 나라로 숙위 간 기회에 망명하여 정중종의 창시자 김무상 선사가 되었다. 그의 아들 지렴[성덕왕의 조카]도 733년 12월 당 나라로 떠났다. 그러나 이 역사를 신라 시대 사가들이 왜곡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들은 성덕왕을 중심으로 그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한 방향으로 썼을 뿐이다. 진 자에 대한 기록은 남기지 않았지만 잘 들여다보고 면밀하게 분석하면 이렇게 그 시대의 정치적 쟁투의 실상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중요한 것은 기록, 특히 원전을 잘 읽고 잘 번역하는 일이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30 13:26(KST)

의 즉위는 태자로 책봉된 적이 없는 제31대 신문왕의 셋째 아들이 왕위에 오른 경우로 매우 특이한 사례가 된다.

그런데 『삼국유사』의 (10)과 (11)을 보면[16] 성덕왕은 702년 22세에 國人이 보낸 장군 4인에 의하여 오대산에서 모셔져 와서 즉위하였다.[17]

---

16) 이에 관한 번역과 해석은 서정목, 앞의 논문(2015a)와 앞의 책(2016a:제6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 두 조에 대하여 『삼국유사』의 번역서들은 모두 오역들을 남발하고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 '자장법사의 신라귀국 시기', '태종문무왕의 해석', '정신태자'의 해석 등에서 제대로 된 번역서가 하나도 없다. 이에 따라 이 두 기록에 대한 과거의 연구는 옳은 것이 거의 없다. 특히 신종원, 「신라 오대산 사적과 성덕왕의 즉위 배경」 『최영희선생 화갑기념 한국사학논총』, 탐구당, 1987은 '효소왕의 즉위 시 나이', '성덕왕이 김흠돌의 딸의 소생으로 효소왕의 이복형이라고 보는 것', '부군의 정체', '폐위된 사람' 등등에 관하여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오류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이 기록에 대한 연구, 나아가 신라 중대 정치사 연구를 잘못된 방향으로 오도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글에서는 중요한 내용의 번역이 다 틀려 있다. 심사 의견에 '한문 번역과 해석에서 자의적인 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기록에 대한 틀린 번역들과 필자의 번역을 대조하여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통용되는 번역과 필자의 번역은 천양지차가 있다. 어느 것이 옳은지 판가름해야 한다. 필자는 한문 문법과 한국어 문법에 따라 문법적으로 최대한 정확하게 분석하고 자의적인 번역을 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아직 그렇게 보인다니 유감이다. '恣意的[arbitrary]'이라는 말은 '일정한 질서를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하는'의 뜻으로 학문에서는 모욕적인 말이다. 필자의 번역과 해석의 어느 부분이 일정한 질서를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한 것인가? 정확하게 어느 문장, 어느 단어가 자의적으로 번역되고 해석되었는지 지적해 달라. 틀렸으면 수정하겠다. 그러나 현재 학계에 통용되는 틀린 번역과 필자의 번역이 다르다고, '자의적이라'고 판단하고 막연하게 수정하라고 하는 이런 지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17) 이 기록에서는 '국인이 장군 4인을 오대산에 보내어 효명을 모셔왔다.'고 한다. 성덕왕을 즉위시킨 주체 세력이 國人이었음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이 일치한다. '國人'의 실체가 무엇인지 논의 대상이 된다. 국인은 사서에 여러 번 등장한다. 국인은 시대와 장면에 따라 달리 해석된다. 어떤 경우는 백성을 뜻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태후를 지칭하기도 한다. 진지왕이 황음하여 국인이 폐하였다는 문맥의 국인은 진흥왕비 사도부인으로 판단된다. 대체로 차기 왕위를 이을 사람을 결정하는 사람으로 보인다. 나라의 주인이다. 702년 당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30 13:26(KST)

(10)a. 정신(의) 태자(가) 아우(인) 부군(과) 신라[셔블]에서 왕위를 다투다가 주멸했다[淨神太子弟副君在新羅爭位誅滅].

b. 國人이 장군 네 사람을 보내어 오대산에 이르러 효명태자 앞에서 만세를 불렀다[國人遣將軍四人到五臺山 孝明太子前呼萬歲]. 즉시 5색 구름이 오대산으로부터 신라[셔블]에 이르기까지 7일 밤낮으로 빛이 떠 있었다[卽時有五色雲自五臺至新羅 七日七夜浮光].

c. 國人이 빛을 찾아 오대산에 이르러 두 태자를 모시고 나라[=셔블, 國]로 돌아가려 했으나 보ㅅ내태자는 울면서 가지 않아서 효명태자를 모시고 나라[셔블]에 와서 즉위시켰다[國人尋光到五臺 欲陪兩太子還國 寶叱徒太子涕泣不歸 陪孝明太子歸國卽位].[18]

시의 국인은, 700년 5월의 '경영의 모반'으로 700년 6월 1일 사망한 신목왕후의 어머니, 즉 효소왕, 성덕왕의 외할머니로 판단된다. 그녀는 김흠운의 아내이다. 김흠운은『삼국사기』권 제47「열전 제7」「김흠운」조에 의하면 태종무열왕의 사위이다. 그의 아내는 문무왕의 누이인 공주이다.『삼국유사』권 제4「의해 제5」「원효불기」조에서는 '요석궁에 홀로 된 공주가 있었고 그 공주가 원효대사와의 사이에서 설총을 낳았다.'고 한다. '요석궁의 홀로 된 공주'가 신목왕후의 어머니이다. 그녀는 신문왕의 장모이고 효소왕, 성덕왕의 외할머니이다.『삼국사기』권 제46「열전 제6」「설총」조에서는 설총이「화왕계」를 통하여 자형인 신문왕을 훈계하고 있다. 신문왕과 설총은 처남매부 사이인 것이다. 이 모두를 융합하여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신라중대 정치사를 쓰는 것, 그것이 필자의 최종 목표이고 소망이다.

18) 이 기록의 '國[나라]', '新羅[셔블]'은 주의를 요한다. '國'은 원래 宮, 城, 廓으로 이루어진 도읍지를 뜻하는 말이다. 그 바깥은 郊이다. 그러므로 '國'의 원의미는 오늘날의 '서울'의 개념과 같다. '新羅'는 '새 新, 벌 羅'이다. 이는 훈차자를 이용하여 '새벌'을 적은 것이다. '새벌'은 '동쪽 벌판'이다. 이 동쪽 벌판을 다르게는 음차자로 '徐伐'로 적기도 하였다. '徐羅伐'은 훈차자 '벌 羅'와 음차자 '伐'이 중복하여 표기된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新羅'는 국명이 아니고 오늘날의 경주를 뜻하는 '徐伐[셔블]'이라는 말이다. 그것을 한자로 적으면 '國'이 된다. 따라서 '新羅'와 '國'은 동일한 지역을 지칭하는 단어인 것이다. 그러므로 '新羅'라고 적은 것은 고려 시대에 적은 것이고, '國'이라고 적은 것은 신라 시대에 적은 것이라는 가설은 타당한 것이 아니다. 동일한 자료에 '國'도 나오고 '新羅'도 나오지 않는가? 고대 한국어의 '새벌'이 중세 한국어의 '셔볼'을 거쳐 오늘날의 '서울'이 되었다. 국어학과 국사학이 협력하여야 함을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30 13:26(KST)

d. 재위 20여년. 신룡 원년[705년] 3월 8일 비로소 진여원을 열었다(운운)[在位二十餘年 神龍元年三月八日 始開眞如院(云云)]. <『삼국유사』 권 제3「탑상 제4」「명주 오대산 보ㅅ내 태자 전기」>

(11)a. 정신왕 (태자)의 아우가 왕과 왕위를 다투었다[淨神王之弟與王爭位].

b. 國人이 (정신왕 (태자의) 아우를 부군에서) 폐하고, 장군 네 사람을 보내어 산에 이르러 맞아오게 하였다[國人廢之 遣將軍四人到山迎之]. 먼저 효명의 암자 앞에 이르러 만세를 부르니 이때 5색 구름이 7일 동안 드리워 덮여 있었다[先到孝明庵前呼萬歲 時有五色雲 七日垂覆].

c. 國人이 그 구름을 찾아 마침내 이르러 임금의 수레 노부를 벌여 놓고 두 태자를 맞이하여 돌아가려 하니 보천은 울면서 사양하므로 이에 효명을 받들어 돌아와 즉위시켰다[國人尋雲而畢至 排列鹵簿 將邀兩太子而歸 寶川哭泣以辭 乃奉孝明歸卽位].

d. 나라를 다스린 지 몇 해 뒤인[理國有年] *{「記」에 이르기를 재위 20여년이라 한 것은 대개 붕어년에 나이가 26세라는 것의 잘못이다. 재위는 단지 10년뿐이다.[記云 在位二十餘年蓋崩年壽二十六之訛也 在位但十年尒] 또 신문왕의 아우가 왕 위를 다툰 일은 국사에 글이 없다. 미상이다.[又神文之弟爭位事國史無文 未詳]}* 신룡 원년[以神龍元年] *{당 나라 중종이 복위한 해이다. 성덕왕 즉위 4년이다[乃唐中宗復位之年聖德王卽位四年也].}* 을사년[705년] 3월 초4일 비로소 진여원을 다시 지었다[乙巳三月初四日始改創眞如院]. <『삼국유사』 권 제3「탑상 제4」「대산 오만 진신」>

(10a)를 보면 '정신의 태자[효소왕]'이 '아우인 부군'과 왕위를 다투다가 사망하였다. (11a, b)를 보면 이때 정신왕[신문왕]의 태자[효소왕]의 아우[신문왕의 원자]가 부군으로 있다가 부군에서 폐위되었다.[19] '경영의 모

보여 주는 한 예이다.

19) '副君'은 왕이 아들이 없을 때 아우 가운데 한 사람을 책봉하여 태자 역할을 하게 한 직위이다. 효소왕 때에 신문왕의 원자가 부군으로 책봉되어 있었음이 『삼국유사』 권 제3「탑상 제4」「명주 오대산 보ㅅ내 태자 전기」(10)에는 明文으로 보이고,「대산 오만 진신」(11)에는 그 흔적이 보인다. 효성왕 때에 아우 헌영이 태자로 책봉되었는데 이때는 '부군'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30 13:26(KST)

반'에 연루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효소왕의 왕자 수충도 왕위계승에서 탈락하였다. 아마도 효소왕의 아우인 부군을 즉위시키려 했던 '경영의 모반'의 원인이 이 효소왕의 아들 수충이었을 것이다. 나이가 너무 어렸다는 것도 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성덕왕은 한 사람의 적통 아우와 한 사람의 장손 조카를 제치고 왕위에 오른 것이다.

이 왕위 계승은 『구당서』에도 (12)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성덕왕이 당나라 측천무후 시기에 그 영향 아래 신라의 국인에 의하여 선택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측천무후는 원측법사를 生佛처럼 존숭하여 모실 정도로 신라에 관하여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12) 이홍이 장안 2년[702년]에 죽었다[理洪以長安二年卒]. 측천이 그를 위하여 애도식을 거행하고 2일 간 조회를 하지 않았다[則天爲之擧哀輟朝二日]. (사신을) 보내어 그 아우 흥광을 세워 신라왕으로 하고 형의 장군 도독의 호를 이어받게 하였다[遣立其弟興光爲新羅王仍襲兄將軍都督之號]. 흥광의 본명이 태*{현의 잘못, 필자 주}*종과 같으므로 선천 연간에 측천이 바꾸었다[興光本名輿太*{玄의 誤: 필자}*宗同 先天中則天改焉*{생각컨대 선천 시에 측천은 이미 졸하였으므로 이곳에 오류가 있다[按

『삼국사기』엔 신라 하대의 제41대 헌덕왕 14년[822년] 춘정월에 '동모제 수종*{또는 수승}*을 부군으로 삼고 월지궁에 들게 하였다[以母弟秀宗爲副君 入月池宮*{秀宗或云秀升}*].'에 '부군'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이 수종이 흥덕왕이 되었다. 그러므로 『삼국유사』의 '副君'은 실제로 있었던 제도를 적은 것이다. 이 신문왕의 원자인 효소왕 때의 부군이 '경영의 모반'의 핵이 되었으므로 효성왕 때의 헌영에게는 '부군'이라는 말 대신에 '태자'라는 말을 썼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형이 왕인데 그 아우를 태자라 하는 것은 더 이상한 일이다. 하대에 와서 흥덕왕 때에 도로 '부군'이라 하기로 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 시대의 '世弟'가 훨씬 합리적인 명칭이다. 그런데 이 '부군'은 匈奴族의 전통이라 할 수 있다. 흉노족은 최고 통수권자 單于[뜻: 하늘의 아들] 아래에 左賢王, 右賢王을 두었다. 신라의 葛文王은 '갈온 님금'으로 '갈무리해 둔 왕', '예비 임금'의 개념에 가깝다. 주로 임금의 아우들이다. 추존한 '갈문왕'은 주로, 아들이나 딸이 왕이 된, 전왕의 아우에게 붙인 칭호이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30 13:26(KST)

*先天時則天已卒此處有誤].}** <『구당서』 권 제199 上「열전 제149」 上「신라」>

(13)은 성덕왕의 혼인과 자녀 관련 기사들이다. 성덕왕은 (13a)에서 보듯이 704년 5월에 혼인하였다. 왕비는 승부령 蘇判 金元泰의 딸이다. (6)의 『삼국유사』에서는 元太 阿干의 딸이라 하였다. 이 왕비가 (6)의 엄정왕후이다. 소판과 아간 사이에 차이가 커서 잘 이해하기는 어렵다. 아마 아간은 딸을 왕비로 들이던 시기의 관등이고 소판은 최종 관등일 것이다. 그러면 704년에 혼인한 왕비는 엄정왕후이다.[20]

(13)a. 704년[성덕왕 3년] 여름 5월에 승부령 소판*{*구본에는 반이라 했는데 이번에 바로 잡았다*}* 김원태의 딸을 들여 왕비로 삼았다[夏五月 納乘府令蘇判*{*舊本作叛 今校正*}*金元泰之女爲妃].

b. 715년[동 14년] 12월 … 왕자 중경을 책봉하여 태자로 삼았다[十二月 …封王子重慶爲太子].

c. 717년[동 16년] 6월에 태자 중경이 죽어 시호를 효상이라 하였다[六月 太子重慶卒 謚曰孝殤].

d. 720년[동 19년] 3월 이찬 순원의 딸을 들여 왕비로 삼았다[三月 納伊飡順元之女爲王妃]. 6월 왕비를 책립하여 왕후로 삼았다[六月 册王妃 爲王后].

e. 724년[동 23년] 봄에 왕자 승경을 세워 태자로 삼았다[春 立王子承慶爲太子].

f. 724년[동 23년] 겨울 12월 … 소덕왕비가 사망하였다[冬十二月 … 炤

20) 일반적으로는 성정왕후와 엄정왕후는 동일인으로 704년에 혼인한 김원태의 딸이라고 본다. 그리고 그 왕비가 폐비된 후에 소덕왕비가 들어온 것으로 본다. 서정목, 앞의 논문(2015d)에서도 그렇게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논증되지 않는다. 서정목, 앞의 책(2016a:제5장, 제6장)은 성정왕후와 엄정왕후는 다른 사람이고 704년에 혼인한 왕비는 엄정왕후라고 주장하였다. 당연히 성정왕후는 누구의 왕비인지가 문제된다. 필자는 성정왕후가 효소왕의 왕비로서 성덕왕의 형수인데 兄死娶嫂되었다고 본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30 13:26(KST)

德王妃卒]. <『삼국사기』 권 제8 「신라본기 제8」 「성덕왕」>

이어서 (13b)에서는 715년 12월 왕자 중경을 태자로 책봉하였다. 715년은 소덕왕후가 혼인하기도 전이므로 중경의 어머니가 소덕왕후가 아닌 것은 확실하다. 중경의 생모는 엄정왕후였을 것이다. 그런데 중경은 '왕자'로 적혔지 '원자'로 기록되지 않았다. 그가 원자가 아닌 것은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 그의 어머니가 원비가 아닌 경우와 그가 맏아들이 아닌 경우이다. 그의 어머니는 엄정왕후로 성덕왕의 원비이다. 그러므로 그는 맏아들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에게는 아마 형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형이 일찍 사망하였을 것이다. 이름 重慶[거듭된 경사]으로 보아 그는 둘째 아들임에 틀림없다. 중경은 704년에 혼인한 엄정왕후의 둘째 아들이므로 빨라야 707년생이다. 715년에 9살 정도이다.

그 태자 중경은 (13c)에서 보듯이 717년 6월에 사망하였다. 그의 시호 孝殤(太子)의 '殤'은 '20세를 넘기지 못하고 일찍 죽었음을 뜻하는 말, 즉 일찍 죽을 상'이다. 중경의 형은 중경이 사망할 때의 나이인 11살보다 더 어린 나이에 사망하였음에 틀림없다.[21]

---

21) 7세 이하에 죽으면 無服之殤, 8세~11세에 죽으면 下殤, 12세~15세에 죽으면 中殤, 16세~19세에 죽으면 長殤이라 한다. 이 '殤' 자는 '일찍 죽을 殤'이다. 誤植이라고 생각하지만 박해현(2003)은 이 孝殤을 孝傷으로 적고 있다. 글자 한 자, 획 하나, 이 경우 편방 하나가 큰 의미를 지닌다. 이런 것을 교양 국어 시간에 국어 선생이 가르쳐야 모든 분야의 학문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능력을 갖춘 국어 선생이 이제는 거의 없다. 필자는 이것을 큰일이라고 생각한다. 신라 시대 인명들은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만큼 의미심장하다. 상대등으로 있을 때 혜공왕을 弑害하고 왕위에 오른 '가장 나쁜 재상'인 37대 宣德王을 『삼국사기』는 惡相이라 하지 않고 良相[좋은 재상]이라고 적고 있다. 원래부터 이름이 양상인지,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안 좋은 재상을 비꼰 것인지 알 수 없다. 信忠, 義忠, 忠信, 孝信은 신의와 충성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孝昭, 孝成, 孝殤 등 '孝' 자가 들어간 이름들은 불효한 경우가 많다. 이 이름들은 인생을 마감할 때 생애를 돌아보고 붙인 이름이지 어릴 때 붙인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30 13:26(KST)

(13d)에서는 전 왕비인 엄정왕후를 어떻게 했는지 아무런 기록 없이 720년 3월에 성덕왕이 '이찬 순원의 딸'과 재혼하였다. 그리고 (13e)에서 724년에 '왕자 승경'을 세워 태자로 삼았다. 이 '왕자 승경'이 과연 소덕왕후의 아들일까? 그가 소덕왕후의 아들이라야 721년경에 태어나고 3살인 724년에 태자로 책봉되었다는 (3c)가 진실이 된다.

(7)과 (8)에서 효성왕의 어머니가 소덕왕후라고 적은 것은 효성왕의 생모가 소덕왕후라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효성왕의 법적인 어머니, 즉 성덕왕의 마지막 왕비가 소덕왕후라는 것을 적은 것이다. 소덕왕후 사후에 성덕왕은 정식으로는 혼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성덕왕의 최후의 왕비, 즉 효성왕의 법적 모는 소덕왕후가 된다.

태종무열왕의 법적 왕비는 문명왕후이지 고타소의 어머니가 아니다. 신문왕의 경우에는 즉위 시의 기록에는 왕비는 김흠돌의 딸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효소왕, 성덕왕의 어머니는 신목왕후라고 적었다. 신문왕의 법적인 왕비는 신목왕후이고, 이 왕들은 법적인 어머니와 생모가 같은 것이다. 경덕왕은 생모와 법적 모가 동일한 소덕왕후이다. 경덕왕 즉위 시의 기록에는 왕비가 이찬 순정의 딸이라고 하여 선비를 적고 있다. 그러나 경덕왕의 아들 혜공왕의 즉위 시의 기록에는 모가 김의충의 딸 만월부인으로 되어 있다. 혜공왕도 생모와 법적 어머니가 같은 경우이다. 효성왕의 경우는 생모는 선비이지만 법적인 어머니는 후비이다. 그래서 후비의 아들이라고 적은 것이다. 신라중대에서 생모와 법적인 모가 다른 왕은 효성

이름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전통 사회에서 兒名, 初名, 字, 號, 別號, 本名, 죽은 뒤의 諡號 등 여러 호칭이 있었음을 잊으면 안 된다. 기록에 남은 이름 가운데에는 시호와 본명이 많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字가 무엇이다, 號가 무엇이다.'를 밝히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우리 학계가 이런 것을 돌아다 볼 여유가 없었을 것임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정말로 우리가 전통 사회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갖고 역사 기록을 읽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30 13:26(KST)

왕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경우의 예를 증거로 들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소덕왕후가 효성왕의 생모이기도 할까? 필자는 소덕왕후가 효성왕의 생모가 아니라고 본다. 효성왕의 생모가 소덕왕후가 아니라면, 소덕왕후가 생모인 경덕왕 헌영과 효성왕은 동모형제가 아니다. 그러나 (14)에서 보듯이 『삼국사기』는 경덕왕이 효성왕의 동모제라고 명백하게 적고 있다.

(14) 742년, 경덕왕이 즉위하였다[景德王立]. 휘는 헌영이다[諱憲英]. 효성왕의 같은 어머니 아우이다[孝成王同母弟]. 효성왕이 아들이 없어 헌영을 책립하여 태자로 삼았다[孝成無子 立憲英爲太子]. 그리하여 왕위 계승 지위를 얻었다[故得嗣位]. 왕비는 이찬 순정의 딸이다[妃伊湌順貞之女也]. <『삼국사기』 권 제9 「신라본기 제9」 「경덕왕」>

효성왕과 경덕왕이 동모형제인가 아니면 이복형제인가? 이것은 예사 문제가 아니다. 과거에는 (14)의 기록을 그대로 믿어 효성왕과 경덕왕이 동모형제이고, 또 (7)과 (8)에서도 모두 효성왕이 소덕왕후의 아들이라고 하였으므로 아무런 의심 없이 효성왕의 어머니가 소덕왕후이고 효성왕은 경덕왕의 동모형이라고 해 왔다.[22]

22) 『孟子』 「盡心章句 下」의 한 구절을 되새겨 본다. "孟子曰 盡信書 則不如無書[맹자 가라사되 『書經』을 (글자) 그대로 믿으면 『서경』이 없는 것만 못하다]. 吾於武成 取二三策已矣[나는 「무성 편」에서 2~3책밖에는 취할 것이 없더라]. 仁人無敵於天下[어진 사람은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다]. 以至仁伐至不仁 而何其血之流杵也[지극히 어짊으로써 지극히 어질지 않음을 정벌하는데 어찌 그리 피가 흘러넘쳐 방패를 띄울 정도가 되었을까]?" 맹자가 『서경』을 그대로 믿지 않듯이 필자는 『맹자』도 그대로 믿지는 않는다. 周 무왕이 아무리 어질다 한들 殷 나라를 멸하고 주 나라가 서는데 어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일이 거저 이루어졌겠는가? 아무리 남이 어질고 북이 모질다 하더라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한 쪽을 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방패를 띄울 정도의 피가 흘러야 仁도 不仁을 멸할 수 있다. 이 세상에 글자 그대로 믿을 만한 기록은 하나도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30 13:26(KST)

그러나『삼국유사』권 제5「피은 제8」「신충 괘관」조의「원가」창작 배경과『삼국사기』권 제9「신라본기 제9」「효성왕」대의 기록을 잘 살펴보면 이 두 왕이 동모형제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다. 동모형제 사이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 두 형제 사이에는 산재해 있다. 어찌 친형제 사이에 그렇게 골육상쟁을 벌일 수 있었겠는가?

필자는 (7), (8), (14)의 모든 역사 기록들은 법적인 모를 적은 것으로 보고, '승경의 생모'는 소덕왕후가 아니라 엄정왕후라고 본다. 효성왕 승경은 소덕왕후의 아들도 아니고 3살에 태자로 책봉된 것도 아니다. 중요한 점은 '소덕왕후가 효성왕의 生母가 아니라는 것'이지 '효성왕의 母가 소덕왕후라는『삼국사기』,『삼국유사』의 기록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기록은 법적인 모를 적은 것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23] 그러

없다.『삼국사기』,『삼국유사』의 왕의 母는 생모인지 법적인 모인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각 왕의 개별적 사정에 따라 생모인지 법적인 모인지 가려서 헤아려야 한다.

23) 심사 의견에 "『삼국사기』 등의 사료 기록이 완전한 사실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도 사료 비판을 넘어서는 논지의 전개는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한다. 목차에서도 드러나듯 "Ⅲ. 효성왕의 생모는 엄정왕후이다. 1. 소덕왕후는 효성왕의 법적 어머니이다." 등의 표현은 저자의 의도를 명확히 하고는 있지만, 반면에 사료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료비판과 사료부정의 경계가 모호해지지 않도록 보다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옳은 지적이다. 그러나 필자는 사료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삼국사기』와『삼국유사』의 '효성왕의 모는 소덕왕후이다.'는 것은 옳다. 다만 그 모가 법적 모인가 생모인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경덕왕은 효성왕의 동모제이다.'는 것은 앞의 소덕왕후가 법적 모라고 한 것이라면 그대로 따라오는 것이므로 옳다. 다만 효성왕의 생모가 소덕왕후가 아니라면 그때는 동모제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사료 부정의 문제와 관련하여 필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은, '성정왕후가 효소왕의 왕비이고 김수충이 효소왕과 성정왕후의 친아들일 것이라.'는 필자의 주장이다. 이것은『삼국사기』에서 '효소왕이 무자하여 성덕왕이 즉위하였다.'고 했으므로 매우 조심스럽고 위험한 것이다. 그러나『삼국사기』는 성정왕후가 어느 왕의 왕비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런데 성덕왕의 왕비인 엄정왕후와 동일인이라고 하기에는 중경이 태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30 13:26(KST)

므로 이 논문의 비판 대상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효성왕의 모가 소덕왕후라는 기록이 아니다. 필자의 비판 대상은, 이를 잘못 읽어 이것이 효성왕의 생모가 소덕왕후라고 적은 것이라고 이해하고 해석하여 관련된 모든 역사적 사실을 그릇 기술한 현대 한국 학계의 신라중대 정치사 연구자들이다. 그 대표적 예가 (3)과 같은 기술이다.

효성왕이 소덕왕후의 친아들이 아니라 엄정왕후의 친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3)의 왕당파 대 진골 귀족 세력의 대립이라는 허구는 무너진다. 효성왕이 3세에 태자로 책봉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효성왕이 소덕왕후의 친아들이라는 가설이 성립되지 않는다. 효성왕 승경이 소덕왕후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는가? 그 증거는 무엇인가? 효성왕의 생모가 소덕왕후가 아니라는 증거는 6가지 정도를 들 수 있다.[24]

자로 책봉된 뒤에 출궁하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리고 '왕자 수충'도 『삼국사기』에서는 어느 왕의 친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런데 704년에 혼인한 성덕왕의 친아들이라 하기에는 714년에 당 나라에 숙위 갈 때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안 맞는다. 왜 그가 태자 책봉에서 배제되었는지도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효소왕이 무자하여 성덕왕이 즉위하였다.'는 것은 후세에 기록을 하면서 성덕왕 중심으로 기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물론 효소왕의 왕비와 친아들이 702년 효소왕 사후 아우인 성덕왕에게 형사취수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 필자는 이런 것은 '사료 부정'이 아니고 문헌 비평[Textual Criticism]이라고 본다. 문헌의 기록을 여러 정황에 비추어 살펴보아 진위를 논의하는 것, 그것이 인문학의 꽃인 考證이고 문헌 연구이다. 『삼국사기』에서 혜명왕비를 '이찬 순원의 딸'이라 한 것이 오류이고, 『삼국유사』의 '진종 각간의 딸'이라 한 것이 옳다는 것은 '사료 부정'이 아니고 문헌 비평을 거친 '사료 교정'이다. 명백한 오기, 오각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역사의 진실을 밝힐 수 있겠는가? 그러나 차례 속의 소제목들을 고쳐서 사료를 부정하는 듯한 인상을 완화시키려 하였다. 그러고 보니 어쩐지 김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렇지만 국사학계의 우려를 존중한다는 필자의 심경을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본격적인 학술 토론이 시작되어 우리 학계의 학술 토론이 진위를 가리는 토론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다.

24) 심사 의견에 '효성왕이 소덕왕후의 친아들이 아니라고 해서, 엄정왕후의 친아들이라는 것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요지의 수정 의견이 있었다. 그럴 수도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30 13:26(KST)

2. 소덕왕후가 효성왕의 생모가 아닌 증거들

1) 증거 제1: 소덕왕후의 왕비 재위 기간

그 제1 증거는 소덕왕후가 왕비로 있은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13f)에서 본 대로 724년 12월 소덕왕후가 사망하였다. 소덕왕후는 720년 3월에 혼인하였다. 소덕왕후는 몇 년 동안 왕비로 있었을까? 4년 10개월이다. 이 4년 10개월 동안 소덕왕후가 몇 명의 아이를 낳을 수 있었겠는가?

인간 출산의 가장 일반적인 터울로 계산하면, 혼인한 후 1년쯤 뒤인 721년 초에 1명, 723년 초에 1명, 724년 말에 1명, 그 정도면 최대한이다. 724년 12월에 소덕왕후가 사망하였다는 것은, 이 왕비가 마지막 아이를 낳은 후 출산 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쌍둥이를 낳은 경우를 감안하여도 4명 이상 낳기는 어렵다. 쌍둥이를 낳았으면 1~2

있을 것이다. 효성왕이 716년에 출궁된 성정왕후의 친아들일 수도 있고 성덕왕의 후궁의 아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효성왕은 엄정왕후의 친아들일 확률이 가장 높다. 소덕왕후가 효성왕의 생모가 아니라는 것만 확실할 뿐이다. 효성왕의 생모가 소덕왕후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효성왕은 소덕왕후의 친아들인 경덕왕과 골육상쟁을 벌이게 되어 있다. 그러나 효성왕이 엄정왕후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은 증명되지 않는다. 그것이 증명될 때까지 필자는 가장 높은 확률일 '효성왕의 생모는 엄정왕후이다.'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런 수정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삼국사기』의 '효성왕의 모가 소덕왕후라.'는 기록[그것은 법적 모를 적은 것으로 해석된다.] 외에는, 효성왕이 엄정왕후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근거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이렇게, 새로운 학설을 제안하는 역사 연구 초보자의 논문을 '수정 후 게재'하라고 윽박지르면 어떤 젊은이가 우리 역사 연구, 그것도 漢文으로 된 고대사 연구에 투신하겠는가? 그리고 『삼국사기』의 기록의 오류나 해석상의 오류를 수정하려고 도전하겠는가? 이런 면에서 당 나라의 기록과 『삼국사기』의 기록을 대조하여 서로 다른 점을 찾아 정황을 살펴본 뒤에 『삼국사기』의 오류를 수정하는 김종복, 「8세기 초 나당관계의 재개와 사신 파견－『삼국사기』 신라본기 기사의 오류 수정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126호, 진단학회, 2016, 1~40쪽은 최근에 이루어진 주목할 만한 한국사 연구라 할 것이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30 13:26(KST)

명 늘어날 수 있다.

소덕왕후의 아들임이 분명한 인물은 제35대 경덕왕 헌영이다. 그런데 (15a)에서 보듯이 743년 12월에 당 나라에 하정사로 파견된 경덕왕의 왕제가 있다. 이 왕자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다. 현재로서는 소덕왕후의 아들이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해찬[=파진찬] 金孝芳과 혼인하여 金良相[제37대 선덕왕]을 낳은 성덕왕의 딸 사소부인이 있다.[25] 제36대 혜공왕을 시해하고 스스로 왕위에 오른 제37대 선덕왕 김양상이 (15b)에서 보듯이 성덕왕의 외손자이다. 그의 어머니가 사소부인이다. 이 공주도 소덕왕후의 딸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럴 것이다. 사소부인의 아들 김양상이 실권자가 되어 시중과 상대등이 되었다. 이 시기에 이렇게 영달할 수 있는 집안은 김순원의 집안과 연결된 집안 외에는 있기 어렵다. 김양상이 외사촌 동생 혜공왕을 시해하고 왕위에 올랐다. 이 모든 것을 보면 사소부인, 그 공주도 김순원의 외손녀, 즉 소덕왕후의 딸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면 사소부인은 김순원의 손자 충신, 효신의 고종사촌이고 신충, 의충과 6촌이다. 그러면 소덕왕후가 낳은 3명의 아이가 다 등장하였다.[26]

(15)a. 743년[경덕왕 2년] 겨울 12월 왕제를 파견하여 당 나라에 가서 하정하였다[二年冬十二月 遣王弟入唐賀正]. (당 현종은) 좌청도솔부 원외장사를 수여하였다[授左淸道率府員外長史]. 녹포와 은대를 주고 놓아 보내었다[賜錄袍銀帶 防還]. <『삼국사기』 권 제9 「신라본기 제9」 「경덕왕」>

b. 780년. 선덕왕이 즉위하였다[宣德王立]. 성은 김 씨이고 휘는 양상이다[姓金氏諱良相]. 내물왕 10세손이다[奈勿王十世孫也]. 아버지는 해찬 효방이고 어머니는 김 씨 사소부인이다[父海飡孝芳 母金氏 四炤夫人]. 성

25) 『삼국사기』는 孝芳을 孝方으로도 적었다.

26) 720년에 소덕왕후를 왕비로 들였을 때 건강에 문제가 있었을 리가 없다. 젊은 왕후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출산과 관련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소덕왕후는 경덕왕의 아우나 사소부인을 낳고 그 출산 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을 것이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30 13:26(KST)

> 덕왕의 딸이다[聖德王之女也]. <『삼국사기』 권 제9 「신라본기 제9」 「선덕왕」>

그러므로 헌영의 형인 효성왕이 소덕왕후의 왕비 재위 중에 태어난 아들이기는 매우 어렵다. 이것이 소덕왕후가 효성왕의 생모가 아님을 증언한다.

2) 증거 제2: 효성왕의 형 중경은 원자가 아니다.

그 제2 증거는 (13b, c)에서 본 대로 승경의 형 '태자 중경'을 '원자 중경'이라고 하지 않고 '왕자 중경'이라고 한 데서 온다.[27]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해 준다. 이 중경의 '거듭, 다시 重' 자가 매우 중요하다. 이 이름은 '다시 있은 경사, 거듭된 경사'이다. 그러면 그 앞에 '첫 경사'가 있었다는 말이다. 그 첫 경사는 성덕왕과 엄정왕후 사이에 맏아들이 태어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중경은 맏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다.

---

27) 원비가 낳은 맏아들이 '원자'이고, 할아버지가 왕일 때 태자비의 아들로 태어난 맏아들은 '원손'이다. 필사본 『화랑세기』는 태종무열왕의 재위 시에 태어난 법민의 첫아들을 '태손 소명전군'으로 적었다. 효소왕 이홍이 원손이 아닌 것은 그가 태자비에게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무왕은 아버지가 왕이 되기 전에 태어났지만, 그때는 선덕여왕 시대일 것이므로 원손으로 불리었을 리가 없다. 그러니 태종무열왕이 즉위한 뒤인 655년 3월 '立元子法敏爲太子'로 기록되었다. 서정목, 앞의 논문(2015e)는 '원자'와 '왕자'가 『삼국사기』에서 한 번도 혼돈되지 않고 구분되어 적혔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든 "687년[신문왕 7년](?) 2월에 태어난 신문왕의 '원자'가 691년[신문왕 11년] 3월 1일 태자로 책봉된 왕자 이홍과 같은 사람이고, 그 이홍이 효소왕이 되었으니, 효소왕이 신문왕의 원자이고 6살에 즉위하였다."고 썼거나 쓰면 그는 원자와 왕자도 구분하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이 된다. 그런데 모든 신라 중대 정치사 연구 논저가 다 그렇게 썼다. 그리하여 기존의 신라 중대 정치사 연구는 효소왕, 성덕왕과 관련한 일의 설명에서 10년씩 연대가 착오가 나는, 진실에서 벗어난 말을 하고 있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30 13:26(KST)

이것이 성덕왕의 태자 중경이 '원자 중경'으로 적히지 않고 '왕자 중경'으로 적힌 이유이다.

성덕왕과 엄정왕후가 704년에 혼인하였으므로 정상적이라면 맏아들은 705년경에 태어났을 것이다. 중경은 707년생쯤 된다. 그러면 715년에 중경은 9살이고 사망할 때는 11살이다. 이 태자 중경의 시호는 앞에서 본 대로 孝殤이다.[28] 그는 11살 이하의 나이에 죽은 下殤에 해당한다. 성덕왕의 '원자'는 기록에 없다. 7살 이전에 無服之殤으로 일찍 사망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 승경은 710년생쯤 된다. 그는 성덕왕과 엄정왕후의 세 번째 아들이다. 2살 터울로 출산을 하던 엄정왕후가 세 번째 아이는 긴 시일이 흐른 후에 낳았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왕자들의 출생 터울은 어느 정도 길어서 효상태자와 효성왕의 출생년도가 더 늦어질 가능성은 있다.

그렇지만 효성왕의 출생년도는 아무리 늦어져도 720년 3월 소덕왕후가 성덕왕과 혼인하던 시기보다는 앞서야 한다. 그러므로 효성왕의 나이는 현재로서는 10여세의 오차 범위를 넘지 않는다. 그는 737년 즉위할 때 많아야 28세 이하, 적어도 18세 이상이다. 따라서 742년 승하할 때는 많으면 33세, 적어도 23세이다.

성덕왕의 왕자들에 대하여 자세히 아는 것, 이것이 「원가」를 이해하는

28) 중경은 성덕왕과 엄정왕후의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빨라야 707년생이다. 717년 유월에 죽었으니 나이가 많아야 11살이다. 下殤에 속한다. 모든 왕자가 기록에 남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자'의 경우는 특별한 것으로 기록에 남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삼국사기』「신라본기」에는 법흥왕, 문무왕, 신문왕의 원자 세 사람만 '원자'로 적혔다. 이로 보면 원자의 조졸이 『삼국사기』에 적힌 경우와 적히지 않은 경우의 기준을 짐작할 수 있다. 아마 7세 이하에 조졸한 원자들은 無服之殤이므로 기록에 남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로부터 신문왕의 원자는 조졸하지 않고 오래까지 살아남아 있어서 '687년(?) 2월 元子生'이라는 기록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그 원자 金嗣宗 외에는 어떤 원자도 '원자생'이라는 기록을 남기지 못하였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30 13:26(KST)

데에, 그리고 이 시기의 신라 정치사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3) 증거 제3: 성덕왕의 왕자들의 이름

그 제3 증거는 성덕왕의 왕자들의 이름으로부터 온다. 엄정왕후의 아들인 첫 번째 태자의 이름은 중경이다. 승경은 이 이름과 비슷하다. 이미 당 나라의 현종의 형제들이 隆자 돌림이라는 것이 다 알려져 있었다. 이때에는 아들들의 이름을 돌림자를 이용하여 지었을 가능성이 크다. 태종무열왕의 아들들의 이름이 법민, 인문, 문왕, 노단, 지경, 개원, 개지문, 거득, 마득 등인 것과는 차이가 난다. 문무왕의 아들들은 '○明'으로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신문왕의 아들들의 이름은 '理恭[理洪]', 보ㅅ내[寶叱徒, 寶川], 효명[융기, 흥광], 사종, 근질[흠질] 등 종잡을 수 없다. 그러나 성덕왕 시기의 왕자들은 '수충', '○경', '헌영' 등으로 3개의 다른 유형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경'으로 된 이름이 엄정왕후의 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크다.

효성왕의 이름 승경과 소덕왕후의 아들의 이름인 헌영이 전혀 다른 글자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중경과 승경은 너무나 비슷한 이름이고 사연이 있는 이름이다. 중경과 승경은 동모형제이다. 이에 비하여 승경의 아우 헌영은 이름이 너무 달라 다른 어머니 소생일 가능성이 크다.[29] 일찍

29) 이 글에서는 논외로 하지만 714년[성덕왕 15년]에 당 나라에 숙위 갔다가 717년에 돌아온 '왕자 수충'은 또 다른 어머니의 소생이다. 서정목, 앞의 책(2016a: 제5장)은 이 수충이 효소왕과 성정왕후의 아들이라고 논증하였다. 그리고 수충은 719년 다시 당 나라로 가서 김교각이라는 이름으로 안휘성 지주 청양의 구화산에서 수도하여 99세에 열반하였다. 그의 몸에 금을 입혀 등신불=육신불을 만들어 육신보전에 안치하고 지장보살의 화신으로 오늘도 존숭하고 있다. 구화산에 그의 나이 99세를 기념하여 1999년 9월 9일 9시 9분에 착공하여 2013년에 완공된 99미터의 김교각 동상이 서 있다. 그러므로 성정왕후는 엄정왕후가 아니다. 『삼국사기』 권 제9 「신라본기 제9」 「성덕왕」 716년[성덕왕 15년] 조에서 '성정*{일운 엄정}*왕후'에서 '일운 엄정'은 다른 데는 엄정왕후로 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 기록의 편찬자는 성정왕후가 성덕왕의 왕비라고 알고 있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30 13:26(KST)

사망한 중경의 형은 아마도 '원경'이었을 것이다. 아마 경덕왕 2년에 당나라에 사신으로 간 경덕왕의 왕제가 소덕왕후의 아들이었다면 그는 '○영', 또는 '헌○'라는 이름을 가졌을 것이다.

元慶(?)[첫 경사], 重慶[거듭된 경사, 두 번째 경사], 承慶[이어진 경사], 이 왕자들의 이름이 예사롭지 않다. 이들은 성덕왕과 선비 엄정왕후 사이에 태어난 세 왕자이다. 원경은 일찍 이승을 떠났고 중경은 9살쯤 태자가 되었으나 11살에 이승을 떠났다. 오죽했으면 '孝殤'이라 諡號를 내렸겠는가? 그러므로 효성왕 승경은 효상태자 중경의 동모제이고 엄정왕후의 친아들임에 틀림없다.

4) 증거 제4: 효성왕 승경의 나이

그 제4 증거는 승경의 출생년도로부터 온다. 성덕왕과 소덕왕후가 혼인한 것이 720년 3월이므로 그가 만약 소덕왕후 소생이라면 빨라야 721년생이다. 그러면 태자로 책봉된 724년 봄에는 4살이고, 즉위한 737년에는 17살이다. 그러면 신충과 잣나무 아래서 맹약을 하던 시점인 736년 가을에는 16살이고 신충이 「원가」를 짓던 737년 봄에는 17살이다. 노회한 조정의 重臣 신충을 대상으로 '他日若忘卿有如栢樹하리라.'는 맹약을 할 만큼의 나이가 된 것일까? 되었다고 할 수도 있고 좀 어리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박 씨를 태자비로 들이고, 즉위한 후에 그 왕비를 폐비시키고, 또 739년 19살에 혜명왕비와 재혼하였을까? 그리고 740년 20살에 후궁을 총애하여 그 은혜를 베풂이 날로 더해 갔겠는가? 그리하여

는데 다른 데서는 엄정왕후라고도 적었다고 증언한 것이다. 그러나 이때 출궁된 왕비는 효소왕의 왕비 성정왕후이지 성덕왕의 선비 엄정왕후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성정왕후가 자신의 아들 수충이 태자 책봉에서 배제되고 동서 엄정왕후의 아들인 중경이 태자로 책봉된 데 대하여 항의하다가 쫓겨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엄정왕후의 후일담은 아직 알 수 없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30 13:26(KST)

새로 혼인한 혜명왕비가 오라비들과 짜고 후궁을 죽이고 후궁의 아버지 파진찬 영종이 모반하는 일을 당하였을까? 그리고 742년 5월 死因도 없이 승하하여 법류사 남쪽에서 화장당하고 동해에 산골되었을까? 불과 22살에? 이것은 상식적으로 보아 그렇게 되기 어렵다. 그는 721년생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효성왕 승경은 742년 승하할 때 22살이 아니다. 더 많은 나이이다. 몇 살쯤? 아마도 그는 710년생쯤 될 것이다. 그의 형들이 705년, 707년생쯤 되고 어머니는 2살 터울로 아기를 낳은 엄정왕후이다. 그는 709년생이나 710년생이다. 그때의 성덕왕의 왕비는 엄정왕후이다. 그러므로 효성왕은 소덕왕후가 배 아파 낳은 아들이 아니다. 소덕왕후는 효성왕의 생모가 아닌 것이다. 앞에서 본 대로 710년생이면 그는 28세에 즉위하여 33세에 승하한 것으로 계산된다.

그의 승하 시의 나이가 적힌 기록이 어딘가에 있을 것인가? 만약 있다면 그것만 발견하면 이 논의는 종결된다. 그런 것을 찾는 것이 역사가가 할 일이다. 실증이란 그런 것을 찾는 것이다.

5) 증거 제5: 효성왕은 김순원의 친외손자가 아니다.

그 제5 증거로는 효성왕이 소덕왕후 소생이라면 소덕왕후의 아버지인 김순원이 자신의 외손자인 효성왕을 민 신충을 견제하였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음을 들 수 있다. 물론 외척 세력인 김순원이 왕당파로 보이는 신충을 견제하였다는 설명이 가능하기는 하다.

그런데 (3)은 김순원을 왕당파라 하고 있다. 그러면 신충은 무슨 파인가? 여기서는 신충이 진골귀족세력일 수밖에 없다. 신충이 진골 귀족 세력이고 김순원이 왕당파라면 신충이 변절하여 왕당파가 된 것이 736년 가을의 태자 승경과 신충의 맹약이다. 진골귀족세력 신충이 원래 왕당파 김순원의 외손자인 태자 승경의 편이 아니기 때문에 태자 승경이 신충에게 도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30 13:26(KST)

움을 청한 것으로 보게 된다. 이러려면 김순원이 태자 승경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야 김순원이 왕당파라는 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16) (17)에서 보는 역사적 사실은 김순원 집안이 효성왕 승경을 지지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에서 본 대로 이기백(1974)는 신충을 왕당파의 거두라고 보고 있다.[30] 그러면 왕당파인 신충이 적대적 외척인 김순원의 외손자를 민 것인가? 왕당파 신충이 효성왕을 배신하고 김순원 집안 세력으로 간 것은 왕당파가 반왕당파로 간 것일까? 그렇게 설명되지는 않을 것이다. 신충이 왕당파의 거두라는 것은 효성왕을 배신하고 왕당파 김순원 편으로 간 후부터 왕당파의 거두가 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니까 신충이 효성왕을 지지한 것은 왕당파의 반대편으로 간 것이 된다. 그러다가 효성왕을 배신하고 되돌아온 곳은 왕당파가 된다. 그러면 김순원의 왕당파는 효성왕을 지지하지 않은 것이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 김순원으로 대표되는 왕당파는 효성왕 승경을 지지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모두 효성왕 승경을 소덕왕후의 친아들로 보고 김순원이 효성왕의 친외할아버지로서 효성왕을 지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 되는 것이다.

왜 모든 연구자들이 김순원 세력이 승경을 지지하고 있다고 오판하였을까? 그것은 효성왕 시대 5년 동안의 사서의 기록을 제대로 읽지 않고 그냥 효성왕이 소덕왕후의 아들이고 김순원의 외손자라고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효성왕이 즉위한 후 변절하여 헌영의 편으로 되돌아간 신충을 중시로 삼은 739년 정월 이후로부터 일어난 일들을 (16)에 적었다.

(16)a. 739년[효성왕 3년] 봄 정월 조부, 부의 묘에 제사하였다[春正月拜祖考廟]. 중시 의충이 죽어서 이찬 신충을 중시로 삼았다[中侍義忠卒 以伊

30) 이기백, 앞의 책, 234~236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30 13:26(KST)

飡信忠爲中侍].

b. 동 2월 왕제 헌영을 제수하여 파진찬으로 삼았다[二月 拜王弟憲英爲坡珍飡].

c. 동 3월 이찬 순원의 딸 혜명을 들여 비로 삼았다[三月 納伊飡順元女惠明爲妃].

d. 동 여름 5월 파진찬 헌영을 봉하여 태자로 삼았다[夏五月 封波珍飡憲英爲太子].

e. 740년[동 4년] 봄 3월 당이 사신을 보내어 부인 김 씨를 책봉하여 왕비로 삼았다[四年 春三月 唐遣使册夫人金氏爲王妃]. <『삼국사기』 권 제9 「신라본기 제9」 「효성왕」>

(16b)에서는 헌영이 파진찬이 되고, (16c)에서는 순원의 딸(?) 혜명을 왕비로 들이고, (16d)에서는 헌영을 태자로 책봉하였다. 그리고 740년 봄 3월인 (16e)에서는 당 나라가 새 왕비를 책봉하고 있다. 이 새 왕비 혜명은 김 씨인 것이다. 이 (16)의 모든 사건은 신충을 중심으로 하는 김순원 집안, 즉 헌영을 지지하는 세력이 효성왕을 옥죄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 금방 혼인한 젊은 왕이 왜 아들이 없을 것으로 미리 예측하고 아우를 태자로 책봉한다는 말인가? 효성왕의 왕권에 도전하는 이 일들은 모두 신충이 중시로 있을 때 일어났다. 효성왕 대의 전제왕권강화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

(17)a. 740년[효성왕 4년] … 가을 7월 붉은 비단 옷을 입은 한 여인이 예교 아래로부터 나와 조정의 정사를 비방하며 효신공의 문을 지나다가 홀연히 보이지 않았다[四年 … 秋七月 有一緋衣女人 自隸橋下出 謗朝政過孝信公門 忽不見].

b. 8월 파진찬 영종이 모반하다가 복주되었다[八月 波珍飡永宗謀叛 伏誅]. 이에 앞서 영종의 딸이 후궁에 들었는데 왕이 그녀를 지극히 사랑하여 은총을 쏟음이 날로 심하여 갔다[先是 永宗女入後宮 王絶愛之 恩渥日甚]. 왕비가 투기하여 족인들과 모의하여 그녀를 죽였다[王妃嫉妬 與族人謀殺之]. 영종이 왕비의 종당들을 원망하여 이로 인하여 모반하였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30 13:26(KST)

[永宗怨王妃宗黨 因此叛].

c. 6년[742년] 5월 … 왕이 승하하였다[五月 … 王薨]. 시호를 효성이라 하였다[謚曰孝成]. 유명으로 구를 법류사 남쪽에서 태우고 동해에 유골을 뿌렸다[以遺命 燒柩於法流寺南 散骨東海]. <『삼국사기』 권 제9 「신라 본기 제9」 「효성왕」>

(17)은 사건의 순서가 시간의 흐름대로 기록되지 않았다. 이를 시간 순서대로 다시 재배열해 보면 (18)과 같아진다.

(18)a. 영종의 딸이 후궁에 들었는데 왕이 그녀를 지극히 사랑하여 은총을 쏟음이 날로 심하여 갔다.

b. 왕비가 투기하여 족인들과 모의하여 그 후궁을 죽였다.

c. 붉은 비단 옷을 입은 한 여인이 예교 아래로부터 나와 조정의 정사를 비방하며 효신공의 문을 지나다가 홀연히 보이지 않았다.

d. 파진찬 영종이 왕비의 종당들을 원망하여 이로 인하여 모반하다가 복주되었다.

e. 왕이 승하하였다. 시호를 효성이라 하였다. 유명으로 구를 법류사 남쪽에서 태우고 동해에 유골을 뿌렸다.

영종의 딸이 후궁에 들고, 왕비가 투기하여 후궁을 죽이고, 한 여인이 조정 정사를 비방하며 효신공의 문을 지나다가 없어지고, 후궁의 아버지 영종이 모반하다 복주되고 드디어 효성왕이 죽어 화장하여 동해에 산골되었다. '유명으로'가 눈길을 끈다. 무슨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여유가 그에게 있었을까? 화장하여 (시해의) 증거를 없애는 핑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화장하여 동해에 산골된 유일한 왕이다. 경주에 가면 효성왕은 왕릉도 없다. 이 기록을 잘 읽으면 효성왕은 김순원의 친외손자가 아니다. 그는 그들의 처지에서 볼 때는 제거 대상인 것이다. 김순원의 친외손자는 헌영이다.

필자는 왕당파도, 반왕당파도, 진골 귀족 세력도, 외척도 이 역사적 사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30 13:26(KST)

실을 설명하는 데에 적절한 개념이 아니라고 본다. 통일신라시대에는 그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없었다. 김순원은 (3)이 말한 대로 왕당파도 되고, 경덕왕의 외할아버지이므로 외척도 되고, 성골이나 육두품이 아니므로 진골귀족세력도 된다. 신충도 진골이고 왕당파이다. 신충이 외척인 김순원과 연결되면 외척도 된다. 학계에서 통용되는 왕당파, 진골귀족세력, 외척 그런 것은 실존하지 않은 상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세력 구도로는 신라중대 정치적 사건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사족에 가까운 질문이지만, 이 영종의 모반 후 복주를, 효성왕이 왕당파 김순원과 손잡고 진골귀족세력을 거세하였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학계는 파진찬 영종의 모반을, 효성왕이 왕당파 김순원과 손잡고 진골귀족을 거세하는 데 대한 반발이라고 본다. 이에 대하여 국사편찬위원회(1998:103~104)는 (19)와 같이 적고 있다.

(19)a. 이미 헌영이 태자로 나아가는 데에는 상당한 물의가 있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지만(원 글의 주: 생략) 효성왕으로 하여금 순원의 딸을 새로이 왕비로 맞이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첫째 왕비인 박씨왕비를 계속 가까이 하자 이들 세력은 마침내 왕위계승까지 개입하였던 것이다. 즉 김순원의 딸에서 태어난 王弟 헌영의 太子책봉을 통하여 지위를 보다 확고히 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b. 진골귀족의 이러한 반발은 첫번째 왕비의 父로 추정되는 永宗의 세력에 의하여 8월에 일어난 모반사건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원 글의 주: 생략) 그렇지만 이러한 진골귀족세력의 반발은 쉽게 진압되었던 것 같다. 성덕왕대 이후 확고히 자리잡은 김순원을 중심으로 한 전제왕권의 옹호세력은 그만큼 강대하였던 것이었다.

c. 한편 효성왕은 영종의 모반이 실패한 2년 후 아무런 이유도 밝혀지지 않은 채 갑자기 죽었다. 효성왕은 자신을 둘러싸고 조성된 당시의 긴박한 분위기에서 큰 역할이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정치적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았던 것 같다. 뒤를 이어서 김순원세력의 협력을 받아 태자가 되었던 헌영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따라서 효성왕대 박씨왕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30 13:26(KST)

> 비의 등장과 함께 다시 세력을 떨쳐보려고 했던 진골귀족의 움직임은 또한 좌절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국사편찬위원회(1998),『한국사 9』「통일신라」, 탐구당, 1998, 103~104쪽>

(19a)를 보면, '왕당파인 김순원 세력이 혜명왕비를 들여 효성왕을 진골귀족세력과 차단하려 했으나, 효성왕이 박씨 왕비를 계속 가까이 하여, 김순원의 딸에게서 난 헌영을 태자로 책봉하게 하여 왕위계승에 개입하였다.'고 하고 있다. 역사 기록을 잘못 읽은 것이다. '영종의 모반'은 혜명왕비가 투기를 해서 족인들과 모의하여 효성왕이 총애하는 후궁을 죽여서 그 후궁의 아버지가 왕비의 종당들을 원망하여 일으킨 모반이라고『삼국사기』가 (17b)와 같이 명백하게 적고 있다. 이 영종의 모반이 어찌 (19b)처럼 효성왕과 왕당파 김순원의 공격에 대한 진골 귀족 세력의 저항으로 이해된다는 말인가? 전혀 비합리적인 역사인식이 왕당파 대 진골귀족세력의 대립이다.

(19a)에서 말하는, '효성왕이 혜명왕비를 맞이한 뒤에도 박씨 왕비를 계속 가까이 하려 했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삼국사기』에는 (17b)에서 보듯이 '이[영종의 모반]에 앞서 영종의 딸이 후궁에 들었고, 후궁에 대한 왕의 총애가 날로 심하여 혜명왕비가 투기를 하여 족인들과 모의하여 그녀를 죽였다.'고 되어 있다. 박씨 왕비가 후궁에 들었다는 말이 없다.

(19a)에서는 '김순원의 딸[소덕왕후]에서 태어난 王弟 헌영의 太子책봉'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당연히 효성왕은 김순원의 딸에게서 태어난 왕자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효성왕은 김순원의 친외손자가 아닌 것이다. 효성왕과 경덕왕은 이복형제라는 말이다. 어찌 김순원의 딸에게서 난 효성왕을 김순원의 딸에게서 난 헌영으로 견제한다는 말인가? 그것을 생각할 줄 모르면 역사가 제대로 연구되지 않는다. 필자도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원가」가 전혀 설명되지 않았었다. 그것을 생각하려면 인간사에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30 13:26(KST)

대하여 더 깊이 알아야 한다. 왕비가 둘 이상 있고, 이름의 항렬자들이 다른 이복형제들이 있고, 그들 사이에 권력 쟁취를 위한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이런 왕실의 암투를 볼 줄 모르면 어떤 시대의 역사도 연구할 수 없다. 인간사를 알아야,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더러운 본능, 그리고 집요한 권력욕을 알아야 역사 기록을 올바로 읽을 수 있다.

(19b)에서 말하는 '첫 번째 왕비의 父로 추정되는 永宗'는 이상한 말이다. 첫 번째 왕비인 박씨가 후궁이 되었다는 말인가? 당 나라에서 책봉한 왕비를 폐비시켜 유폐시키거나 궁에서 내보내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왕비를 후궁으로 삼았다는 것은 이상하다.

『삼국유사』 제1권 「왕력」 「효성왕」 조의 혜명왕비의 아버지 '진종 각간'이 이 '파진찬 영종'과 동일인이거나 영종을 잘못 적은 것이라는 말은 사리에 어긋난 소리이다. 진종은 김순원의 아들이다. 효성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을 죽이고, 후궁의 아버지 영종을 죽이고 하는 사람들이 (17a)에 '효신공'으로 명백하게 나와 있다. 그의 이름 효신은 그가 충신의 아우임을 뜻한다. 그 충신이 (20)에서 보듯이 성덕왕의 조카 지렴을 종질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20)a. 733년[성덕왕 32년] 겨울 12월 왕질[왕의 조카] 지렴을 당에 파견하여 사은하였다[冬十二月 遣王姪志廉朝唐謝恩]. — (이때 당 현종은) 지렴을 내전으로 불러 향연을 베풀고 속백을 하사하였다[詔饗志廉內殿 賜以束帛].

b. 734년[동 33년] 정월 …입당 숙위하는 좌령군위원외장군 김충신이 (당 제에게) 표문을 올려 말하기를[入唐宿衛左領軍衛員外將軍金忠信上表曰], … 신의 본국 왕은 신이 오래도록 당 나라 조정에 모시고 머물게 되었으므로 종질[여기서는 7촌 조카: 필자] 지렴을 파견하여 신과 교대하도록 하여 지금 여기 왔사오니 신은 즉시 돌아가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臣本國王 以臣久侍天庭 遣使從姪志廉 代臣 今已到訖臣卽合還]. <『삼국사기』 권 제8 「신라본기 제8」 「성덕왕」>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30 13:26(KST)

여기서의 종질은 7촌 조카를 의미한다. 그러면 성덕왕과 충신은 6촌이다. 성덕왕의 아버지 신문왕과 충신의 아버지가 4촌이다. 신문왕의 어머니 자의왕후와 김순원이 남매 사이이다. 그러면 신문왕의 외4촌이 충신의 아버지가 된다. 그 충신의 아버지가 김진종이다. 김진종의 아들이 충신, 효신이다. 그들이 혜명왕비의 오라비들이다.[31]

진종과 영종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김순원 집안[혜명왕비 친정 집안]이나 억울하게 죽은 영종의 집안[후궁의 친정 집안]이 뭐라 하겠는가? 어찌 원수인 두 사람을 같은 사람이라 한다는 말인가? 그러므로 국사편찬위원회(1998:100~104)의 (3)이나 (19)와 같은 기술은 사서를 제대로 읽을 줄 아는, 상식을 갖춘 사람이 할 말이 아니다.

『삼국사기』가 보여 주는 역사 전개를 보면 김순원 집안이 효성왕을 지지한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 사사건건 대립하여 효성왕을 코너로 몰고 간 것이 눈에 훤히 보인다.

왕당파 김순원 집안이 태자 승경을 지지하고, 신충이 태자 승경을 지지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잣나무 아래의 약속으로부터 태자 승경을 지지했다고 보는 현재의 국문학계의 「원가」에 대한 설명은 역사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왕당파 김순원이 효성왕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진골 귀족 세력을 억누르는 데 대한 반발이 진골 귀족 세력 영종의 모반이라는 국사학계의 설명은 전혀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말이다. (3)은 740년 8월의 '영종의 모반'에 대해서도 효성왕이 영종의 모반을 진압하고 왕권을 강화하였다고 쓰고 있다. 효성왕이 후궁을 총애하여 혜명왕비가 후궁을 투기하였고, 왕비가 친정 족인들과 모의하여 그 후궁을 죽였다. 그 후궁의

31) 혜명왕비가 김순원의 딸이라는 『삼국사기』의 기록이 오기이고, 『삼국유사』의 김진종의 딸이라는 것이 옳음은 서정목, 앞의 논문(2016b)에서 논증되었다. 김진종은 김순원의 아들이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30 13:26(KST)

아버지 영종이 억울하여 모반하였는데 그 영종을 누가 죽였겠는가? 혜명왕비의 친정 김순원의 집안이 죽인 것이다. 그것은 왕권을 신하가 능멸한 것이다. 무슨 왕권이 강화되었는가? 그리고 2년도 채 안 되어 742년 5월 효성왕은 많으면 33세, 적으면 23세 정도의 나이에 아무런 사인 없이 죽고 화장당하여 동해에 산골되었다. 『삼국사기』가 그렇게 적고 있다. 필자는 효성왕이 혜명왕비와 헌영에 의하여 시해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그 하수인은 그 당시의 중시 신충이다. 그가 「원가」를 지은 것이다.[32]

김순원 집안은 처음부터 끝까지 태자 승경의 편이 아니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승경의 아우 헌영의 편이었고, 승경이 즉위한 후로는 효성왕을 죽이고 헌영을 즉위시키려는 음모를 꾸며서 효성왕 시해를 감행한 것이다.

6) 증거 제6: 효성왕과 경덕왕의 갈등

그 제6 증거로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증거로는 승경을 소덕왕후 소생으로 보면 다 같은 소덕왕후의 아들인 효성왕과 헌영이 불화를 빚는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음을 들 수 있다. 효성왕의 박씨 왕비를 어떻게(?) 하고, 김순원 집안의 딸인 혜명왕비가 계비로 들어오자 말자 효성왕은 헌영을 태자로 책봉한다. 이상하다. 그 당시의 의술이 얼마나 발전했기에 2달 만에 혜명왕비가 '남편은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판단한다는 말인가?

---

32) 나아가 앞선 시기에 일어난 681년 8월의 '김흠돌의 모반', 700년 5월의 '경영의 모반'은 신문왕과 효소왕이 왕권 강화를 위하여 삼국 통일 전쟁에 공을 세워 비대해진 진골 귀족 세력을 거세하기 위하여 취한 정치적 행위가 아니다. 그런 주장에는 논거가 없다. '김흠돌의 모반'은, 신문왕이 어머니 자의왕후와 미래의 장모 요석공주의 영향 아래 혼외자 이홍, 보ㅅ내, 효명을 지키기 위하여 태자비였다가 막 왕비가 된 김흠돌의 딸을 내쫓으려고 그 왕비의 아버지 김흠돌 일파를 죽인 것이다. '경영의 모반'은, 효소왕이 외할머니의 영향 아래 '신문왕의 원자, 부군'인 아우 사종의 처가 사람(장인?)임에 틀림없을 경영을 죽인 것이다. 왕권 강화 같은 것은 신라 중대에 없었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30 13:26(KST)

더욱이 효성왕은 후궁인 영종의 딸을 사랑하였다. 남자로서 아이를 낳지 못할 만큼의 신체적 결함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혜명왕비가 투기를 하여 친정인 김순원 집안의 족인들과 모의하여 그 후궁을 죽였다. 후궁의 아버지는 왕비의 종당을 원망하여 모반하였다. 이 '영종의 모반'을 진압하고 영종을 죽인 것이 효성왕일까? 그럴 리가 없다. 그것은 혜명왕비의 친정 김순원 집안 사람들이 한 일이다.

성덕왕의 두 아들, 제34대 효성왕과 제35대 경덕왕 시기의 정치적 대립, 특히 736년 가을 '잣나무 아래의 맹약'부터 737년 효성왕 즉위, 그리고 739년 혜명왕비와의 재혼, 아우 헌영의 태자 책봉, 740년의 후궁 살해 사건과 영종의 모반, 742년의 효성왕의 승하와 화장, 동해 산골, 경덕왕 즉위까지의 정치적 대립은, 당연히 효성왕을 미는 세력과 경덕왕을 미는 세력 사이의 대립이다.

이 대립은 신목왕후(의 어머니 요석공주)의 후계 세력인 엄정왕후 세력과 자의왕후의 후계 세력인 소덕왕후 세력의 싸움이다. 당연히 친정의 힘이 막강한 소덕왕후 세력이 이기게 되어 있다. 비록 소덕왕후가 724년 12월에 사망하였지만 그의 친정 조카들인 충신, 효신이 이 시기의 정계의 핵심실세로서 자신들의 고종4촌인 헌영을 경덕왕으로 즉위시키기 위한 정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 정쟁이 신충이 「원가」를 짓게 된 정치적 배경이다.

Ⅳ. 결론

효성왕의 생모와 관련된 문제, 그것은 사실 효성왕의 이름 承慶과 그 아우의 이름 憲英을 보면 다 풀린다. 이 두 왕자의 어머니는 다른 사람이다. 승경은 이어진 경사이다. 그의 출생 앞에도 경사가 있었다. 그의 형의 이름은 重慶이다. 거듭된 경사이다. 그렇다면 중경의 앞에도 또 한 번의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30 13:26(KST)

경사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첫 번째 경사 元慶(?)의 출생이었을 것이다. 이 원자는 조졸하여 史書에 이름을 남기지 못하였다.

성덕왕의 이 세 왕자가 이어진 경사에 취해 있었던 성덕왕 전반기, 신목왕후의 어머니[요석공주]의 전성기에 선비 엄정왕후가 낳은 그녀의 딸 쪽의 증손자들이다. 이 시기는 704년 봄부터 소덕왕후가 들어오는 720년 3월 사이의 16년이다. 그 16년 동안 엄정왕후가 아마도 705년쯤 원자인 첫 아들 원경을 낳았고, 707년쯤 둘째 중경을 낳았으며, 710년쯤에 셋째 승경을 낳았을 것이다. 중경은 태자로 봉해지던 715년에 9살쯤 되었다. 승경은 태자로 봉해지던 724년에 많으면 15살쯤 되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 승경의 혼인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 태자비가 박씨였고 그 박씨가 737년 승경이 효성왕으로 즉위한 뒤 당 나라로부터 책봉받은 왕비 박씨로 적힌 것이다.

효성왕 승경의 생모는 엄정왕후이다. 엄정왕후는 720년 이전에 사망하였거나 실권하였다. 승경은 소덕왕후에게는 '전처의 아들'이다. 헌영은 소덕왕후의 친아들이다. 소덕왕후의 아들인 헌영과 엄정왕후의 아들인 승경은 법적으로는 동모형제이지만 생물학적으로는 異腹兄弟이다.[33] 이 두 왕

33) 「원가」의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성덕왕의 태자 승경' 대 '왕자 헌영'의 왕위 다툼이다. 왕위 다툼이 가장 극악한 것은 이복형제 사이이다. 그러므로 효성왕과 경덕왕이 같은 어머니의 피를 나눈 동복형제인가, 아니면 남보다 더 원수 같은 이복형제인가 하는 이 문제는 「원가」 논의의 대세를 가르는 핵심 요인이다. 그런데 『삼국사기』는 이들이 동모형제라고 명시적으로 적고 있다. 그것을 넘어서, 이 둘이 어머니가 서로 다른 이복형제라는 것을 주장하려면, 『삼국사기』의 '효성왕의 어머니가 소덕왕후이라.'는 기록은 법적 어머니를 적은 것이고, 경덕왕이 효성왕의 '동모제'라는 것은 법적 어머니가 같다는 뜻이지 생모가 같다는 뜻이 아님을 밝히려면, 필자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는가? 아무리 사소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하나도 놓칠 수 없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쓴 글이라도 여기에 배치되면 혹독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다. 이 논증의 성공 여부가 필자의 공부의 명운을 가르는 갈림길이 되기 때문이다. 언어학에서는 사실적 디테일[언어 자료]에 충실하지 못한 이론적 연구는 학문으로서의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30 13:26(KST)

은 모두 친가 쪽으로는 자의왕후의 증손자이고 신목왕후이 손자이지만, 외가 쪽으로는 서로 다른세력에 속한다. 소덕왕후는 순원의 딸이므로 헌영은 모계가 자의왕후의 친정이다. 승경은 모계가 엄정왕후의 친정으로 간다. 704년에 엄정왕후를 간택한 세력은 702년의 국인으로서 그 세력은 요석공주와 그녀의 형제들이다. 결국 태종무열왕의 아들, 딸들이다. 이 싸움은 궁극적으로 문무왕의 친가 쪽 형제 자매들의 후계 세력과 문무왕의 처가 쪽, 즉 자의왕후의 친정 후계 세력의 싸움으로 귀결된다. 이 싸움에서 처가가 이겼다.

『삼국유사』 권 제5 「피은 제8」의 「신충 괘관」 조에는, '성덕왕 사망 몇 개월 전, 태자 승경이 왕이 되기 위하여 잣나무 아래에서 현명한 사[賢士] 신충에게 애걸하며, 왕이 되면 경을 잊지 않겠다고 잣나무를 두고 맹서하였다.'고 되어 있다. 승경이 소덕왕후의 아들로서 정상적으로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탄탄한 태자 지위에 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승경은 왕이 되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 왜? 그는 김순원의 외손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김순원의 외손자로는 승경의 이복동생인 헌영이 있었다. 효성왕은 즉위한 뒤에 공신들에게 상을 줄 때 신충에게 상을 주지 않아서 신충으로 하여금 「원가」를 창작하게 하였다. 향가 「모죽지랑가」, 「찬기파랑가」, 「원가」는 신라 왕실의 권력 투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견고한 인연을 맺고 있다.

가치가 없다고 본다. 어떤 분야든 과학적 학문이 되려면 증거에 의한 논증이 되어야 한다. 우리 학계에는 아무 논거 없는, 논증되지 않는 주장이 난무하고 어떤 경우 그런 것들이 정설로 굳어져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신충이 벼슬을 얻기 위하여 「원가」를 지었다.' '「찬기파랑가」, 「모죽지랑가」는 젊은 화랑의 기상을 노래한 시이다.' '김흠돌의 모반은 왕권 강화를 위하여 진골 귀족 세력을 거세한 것이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대표적 사례는, '신충이 벼슬을 버리고 지리산에 피은하였다.' '효소왕이 신문왕의 원자이고 6세에 즉위하여 16세에 승하하였다.' '성덕왕이 12세에 즉위하였거나, 아니면 김흠돌의 딸이 낳은 효소왕의 이복형일 것이다.'고 하는 것이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30 13:26(KST)

요석공주도, 엄정왕후도 없는 상황에서 태자 승경은 고립무원에 가까운 처지에 놓였다. 승경은 '잣나무 아래의 맹약'으로 신충에게 매달렸다. 그러나 그 잣나무 아래의 맹약은 오래 갈 수 없었다. 신충은 태자 승경을 지지하여 즉위시켰다. 효성왕이 된 승경은 알려지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신충을 배려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신충은 효성왕을 지지한 것을 후회하는 「원가」를 짓고 변절하여 헌영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되돌아갔다. 「신충괘관」을 '신충이 벼슬을 버렸다.'고 번역하고 설명하는 것은 큰일 날 일이다. 「신충괘관」은 '신충의 작록 탐함과 변절', '이순의 벼슬 버림과 피세'로 나누어 번역해야 한다.

이후 공식적으로는 성덕왕이 다시 혼인하였다는 기록이 없다. 소덕왕후의 사망으로부터도 장장 13년이 지난 737년 2월, 태자 승경은 28세 정도 되었고 헌영은 17세쯤 되었을 때에 성덕왕이 승하하였다. 702년에 22세로 즉위하였으므로 재위 35년, 누린 수는 57세이다. 그러므로 그의 법적인 왕비는 소덕왕후이고 태자 승경, 효성왕의 법적인 母는 소덕왕후이다. 그러나 그것이 승경의 生母가 소덕왕후라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앞에서 본 대로 효성왕의 생모는 소덕왕후일 수 없고 엄정왕후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30 13:26(KST)

보주 :

필사본『화랑세기』의 眞書 筆寫說 대 創作 僞書說 논란의 논저들을 읽고 필자는 그 토론이 학문적 토론이라 하기에는 너무 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서 필사라고 주장하는 측의 증거는 美室이 斯多含을 전송하면서 지었다는 향가 한 수와 溝池라는 말 뿐이었다. 그 향가의 표기를 정밀 검토한 후 필자는, '－奴'[의문 어미 '－노'] 때문에 이 표기가 중세[15세기 경] 이후의 경상도 방언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溝池라는 말은 중국문학 교수에게 문의하였더니『예기』에서부터 전거를 찾아주었다. 박창화가『예기』를 안 보았을 리가 없다. 이 둘은 진서를 필사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위서라고 주장하는 측은 그 증거로 이 향가가 후대의 위작이라는 것, 박창화가 우리나라 역사서로는『삼국사기』와『삼국유사』밖에 없다고 했다는 것, 그가 비슷한 성격의 여러 역사 소설들을 썼다는 것을 들고 있다. 이 향가는 위작이 아니라는 학자도 있으므로 증거가 안 된다. 우리나라 역사서로는『삼국사기』와『삼국유사』밖에 없다고 했다는 말은,『화랑세기』는 역사서가 아니고 풍월주의 계보를 적은 것이니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역사 소설 쓴 것과『화랑세기』가 진서를 보고 필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 필자도 소설을 썼다. 그러나 그 소설 때문에 필자의 저작이 모두 위서일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은 증거라 할 수 없다.

필자는 그런 것보다는 더 구체적인 논거들로 이 필사본의 진서 필사, 창작 위서 여부를 따져보고자 하였다. 그것은 그 필사본의 내용과『삼국사기』,『삼국유사』의 관련 내용을 비교하는 일이다. 그런데 비교하면 할수록 그 필사본의 내용이『삼국사기』와『삼국유사』가 전해 주는 그 시대 역사의 실상에 가깝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것도 그 필사본이 진서를 필사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교묘하게 위작된 문서일수록 더욱 진실에 가깝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서 여부를 논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다.

그 필사본이 위서라 하더라도 그 속에 든 문장 하나하나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박창화의 학설로 인정해 주든가, 파기하든가 국사학계가 정해 주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김순원이 파진찬 선품의 아들인지 아닌지, 그리하여 자의왕후의 동생인지 아닌지'를 판정해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김순원이 선품의 아들이라는 것은 옳다.'고 논증하여 판정하였다. 이것은 그 필사본의 위서 여부와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 진리이다.

앞으로 그 필사본이 위서라는 것이 증명된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든 문장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30 13:26(KST)

하나하나가 다 박창화가 먼저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짜라고 해서는 안 된다. 박창화가 쓴 소설 가운데 신목왕후의 어머니는 김춘추가 당 나라에 가서 낳은 당 나라 여인의 딸이라는 허구를 설정한 것이 있다. 김춘추는 648년에 당 나라에 갔다. 그 공주는 빨라야 649년생이다. 김흠운은 655년 정월에 전사하였다. 김흠운과 김춘추의 그 공주 사이에서 신목왕후가 태어나려면 그 공주는 몇 살에 신목왕후를 낳았어야 하는가? 신목왕후가 유복녀라 하더라도 7살에 낳았어야 한다. 아니면 그 소설은 김춘추가 648년보다 훨씬 더 전에도 당 나라에 갔었다는 설정을 하여야 한다. 이런 것이 그 소설의 내용 가운데 진실이 아닌 것도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목왕후의 어머니가 당 나라 여인의 딸이 아니라는 것이, 김흠운이 태종무열왕의 공주와 혼인하였다는 것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김흠운이 태종무열왕의 공주와 혼인하였다는 것은 『삼국사기』 권 제47「열전 제7」「김흠운」 조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다.

필자는 아직 그 필사본에서 이런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만 약간 의심스러운 것 하나는, 김춘추의 生父 김용수의 사망 시의 나이가 70여세로 계산된다는 점이다. 필사본 『화랑세기』에는 "용수전군이 죽기 전에 아내[천명공주]와 아들[김춘추]를 용춘공에게 맡겼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김춘추의 숙부이자 양부인 김용춘에 대해서 '용춘은 선덕여왕의 사신에서 물러나 천명공주를 처로 삼고 태종을 아들로 삼았다. 그리고 진덕여왕 2년[648년]에 70세로 이승을 떠났다.'고 적었다. 여기서 김용수가 "젊어서 죽었고" 그 아내와 아들을 젊은 동생 용춘에게 맡겼다고 "착각하면" 다음의 기록과 모순이 된다.

1964년에 도굴되었다가 1966년 도굴범들이 잡혀서 발견된 '黃龍寺九層木塔 金銅刹柱本記'에 龍樹의 이름이 나온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643년[선덕여왕 12년]에 慈藏이 중국에서 돌아오고자 하여 남산의 圓香禪師에게 머리를 조아리니 원향이 '내가 觀心으로 그대의 나라를 보매 황룡사에 9층의 탑을 세우면 해동의 여러 나라가 모두 그대의 나라에 항복할 것이다.'고 하였다. 자장이 귀국하여[643년 3월 귀국] 선덕여왕에게 이 말을 아뢰니 왕이 듣고 伊干 龍樹를 監君으로 하여 大匠인 백제의 阿非○와 小匠 200인을 거느리고 이 탑을 만들도록 하였다. 선덕여왕 14년[645년]에 시작하여 이듬해에 모두 마쳤다 *{*필자 주: *『삼국사기』에는 645년에 완성되었다고 하였다. '아비○'는 『삼국유사』의 권 제3「탑상 제4」「황룡사구층탑」에는 '아비지(知)'로 되어 있다.*}*."

박창화는 '황룡사구층목탑 금동찰주본기'가 발견되기 전에 사망하였다. 그러므로 박창화는 이 기록의 김용수를 보지 못하였다. 만약 박창화가 "김용수가 젊어서 죽었고, 젊은 김용춘에게 젊은 아내와 어린 아들을 맡겼다."고 썼다면 여기에 딱 걸린다. 그러면 그 필사본은 위서일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박창화는 그렇게 쓰지 않았다. 필사본 『화랑세기』에는 김용수가 "젊어서" 사망했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30 13:26(KST)

다는 말도, "젊은" 용춘이 "젊은" 천명공주와 "어린" 춘추를 맡았다는 기록도 없다. 저 기록을 보고 김용수가 "젊어서" 사망하였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 언제 사망하였는지 알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가 몇 살에 사망하였는지 추리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 이제 그 추리를 해 보기로 한다. 648년 70세로 사망한 용춘은 579년생으로 황룡사 9층 목탑 창건 시기인 645년에 67세이다. 김용수가 용춘보다 2살 많았다고 보면 용수는 577년생이고 645년에 69세이다. 645년 황룡사 9층 목탑을 완성한 후인 646년에 용수가 사망했다면 그는 70세에 사망한 것이 된다. 용수가 19세쯤에 김춘추를 낳았다면 이때 춘추는 52세쯤 된다. 천명공주는 68세 정도 될 것이다. 용수가 52세쯤의 아들 춘추와 68세쯤의 아내 천명공주를 68세쯤의 아우 용춘에게 맡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천명공주는 처녀 때 용춘을 용수보다 더 사랑했다고 한다. 어머니 마야왕후가 잘못 판단하고, 진평왕이 용수를 사위로 삼아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여 양보한 것처럼 되어 있다.

문무왕은 681년에 56세로 승하하였다. 김춘추와 문희 사이에서 법민이 태어났을 때는 626년이고 김춘추는 그때 32세쯤 된다. 할아버지 용수는 50세쯤이다. 김춘추는 642년 8월 딸 고타소를 대야성에서 잃었다. 그의 나이 48세쯤 되어서이다. 김춘추가 고타소를 20세에 낳았다고 보면 고타소는 614년생이고 642년에 29세쯤으로 사망한 것이다. 642년에 법민은 17세이다. 문무왕보다 고타소가 12살쯤 많은 것으로 보인다. 김품석도 30여세로 사망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김춘추는 595년생쯤 된다. 이때 용수는 19세쯤 되고 천명공주는 17세쯤 된다. 김춘추는 654년 즉위했을 때 60세쯤 된다. 법민은 이때 29세다. 그리고 태종은 661년에 승하하였으니 67세쯤에 승하한 것이고 이때 문무왕은 36세다. 이 여러 인물들의 나이를 보면 여기서 추정한 김용수, 용춘, 천명공주, 춘추, 법민의 나이가 사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박창화도 이 나이 계산을 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안 그러고는 이렇게 정확할 수가 없다. 만약 나이 계산을 안 했다면 그는 眞書를 보고 그대로 쓴 것이다.

그러므로 '황룡사구층목탑 금동찰주본기'에 그 목탑을 처음 만들 때의 監君이 伊干 龍樹로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필사본『화랑세기』가 위서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다만, 70세에 사망하는 용수가 68세쯤의 아내 천명공주와 52세쯤의 아들 춘추를 68세쯤의 동생 용춘에게 맡겼다는 것과 용춘이 68세 할머니 천명공주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이 현대적 감각으로는 이상하기는 하다. 그러나 필자도 70이 내일 모레인 지금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면 나보다 2살, 4살 적은 내 아우들을 불러놓고 67세인 내 아내와 40이 넘은 내 자식들을 보살펴 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형수를 아내로 삼는 것만 빼면 저 신라 시대의 일도 현대적 감각으로 보아 큰 문제가 없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30 13:26(KST)

‘황룡사구층목탑 금동찰주본기’는 645년 창건으로부터 226년 뒤인 경문왕 11년[871년]에 동북쪽으로 기울어진 탑을 개수하면서 872년에 朴居勿이 작성한 것이다. 伊干 金魏弘이 책임을 맡았다고 되어 있다. 『삼국사기』에는 경문왕이 871년 정월에 유사에게 개조하라는 명을 내리고, 873년 9월에 9층 22丈의 탑이 이룩되었다고 적고 있다.

이런 것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기록을 읽는 온당한 태도이다. 필사본 『화랑세기』가 진서를 필사한 것인가, 위서인가는 논의하기 어렵다. 僞書라면 필자 정도 수준의 독자가 모순을 찾아내기에는 버거운, 매우 정교하게 조립된 위서이다. 위서라 하더라도 그 속에 들어 있는 내용 가운데는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보여 주지 않는 역사적 진실을 담고 있을 수 있다. 필자는 ‘김순원이 선품의 아들이고, 그의 누이들이 자의왕후와 운명이며, 운명의 남편이 북원 소경[원주]의 전방 부대를 이끌고 서라벌로 회군하여 김흠돌의 모반을 진압한 신문왕의 친위 쿠데타 군의 총사령관 김오기이며, 그 아들이 김대문이라.’는 것은 사료적 가치가 있는 역사적 진실이라고 판단한다.

거기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필자의 역사적 상상도 거의 98% 이상의 확률로 옳을 것이다. 「원가」의 작자이자 효성왕, 경덕왕 대의 중시이고, 경덕왕 대의 상대등 김신충, 만월부인의 아버지 김의충은 김대문의 아들들이고, 이들이 운명의 친정 김순원 집안의 손자 김충신, 김효신과 6촌이며, 자의왕후의 손자 효소왕, 성덕왕, 金嗣宗과 6촌이다. 『삼국사기』는 김충신이 성덕왕의 조카[王姪] 金志廉을 從姪[7촌 조카]라고 지칭한 것을 적었다. 그러면 김충신은 성덕왕의 從兄弟[4촌, 또는 6촌]이다. 『삼국사기』가 (성덕왕의) ‘王弟’라고 적은 김사종은 신문왕의 원자로서 성덕왕의 아우이다. 그는 자제의 국학 입학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아 김지렴의 아버지이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30 13:26(KST)

【참고 문헌】

1. 저서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 9』, 탐구당, 1998.
김수태,『신라 중대 정치사 연구』, 일조각, 1996.
김완진,『향가 해독법 연구』, 서울대 출판부, 1980.
김완진,『향가와 고려 가요』, 서울대 출판부, 2000.
김원중 옮김,『삼국유사』, 을유문화사, 2002.
김종헌 역,『삼국사기』, 대양서적, 1975.
박노준,『신라 가요 연구』, 열화당, 1982.
박해현,『신라 중대 정치사 연구』, 국학자료원, 2003.
서정목,『향가 모죽지랑가 연구』, 서강학술총서 062, 서강대 출판부, 2014a.
서정목,『효석』－「원가」에 대한 새로운 생각: 효성왕과 경덕왕의 골육상쟁－, 글누림, 2016a.
양주동,『고가연구』, 일조각, 1942/1981.
이병도 역,『삼국유사』, 대양서적, 1975.
이병도, 김재원,『한국사, 고대편』, 진단학회, 을유문화사, 1959/1977.
이재호 역,『삼국유사』, 광신출판사, 1993.
이종욱,『역주해, 화랑세기』, 소나무, 1999.

2. 연구 논문

권덕영,『신라 견당사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김재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kjschina, 2015.
김종복,「8세기 초 나당관계의 재개와 사신 파견－『삼국사기』 신라본기 기사의 오류 수정을 중심으로－」『진단학보』 126, 2016.
김태식,「'모왕'으로서의 신라 신목태후」『신라사학보』 22, 2011.
김희만,「신라의 관등명 '잡간(찬)'에 대한 검토」『한국고대사탐구』 19, 2015.
서정목,「모죽지랑가의 시대적 배경 재론」『한국고대사탐구』 15, 2013.
서정목,「효소왕의 출생 시기 관련 기록 검토」『진단학보』 122, 2014b.
서정목,「『삼국유사』의 '정신왕', '정신태자'에 대한 재해석」『한국고대사탐구』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30 13:26(KST)

19, 2015a.
서정목, 「「찬기파랑가」에 대한 새로운 생각」, 제49회 구결학회 전국 학술대회 발표논집, 구결학회, 2015b.
서정목, 「『삼국유사』 소재 「대산 오만 진신」과 「명주 오대산 보ㅅ내 태자 전기」에 대한 검토」, 제24회 시학과 언어학회 전국 학술대회 발표논집, 2015c.
서정목, 「「원가」의 창작 배경과 효성왕의 정치적 처지」 『시학과언어학』 30, 2015d.
서정목, 「『삼국사기』의 '원자'의 용법과 신라 중대 왕자들」 『한국고대사탐구』 21, 2015e.
서정목, 「신라 제34대 효성왕의 계비 혜명왕비의 아버지에 관하여」 『진단학보』 126, 2016b.
신동하, 「신라 오대산 신앙의 구조」 『인문과학연구』 5, 1997.
신종원, 「신라 오대산 사적과 성덕왕의 즉위 배경」 『최영희선생 화갑기념 한국사학논총』, 탐구당, 1987.
이기동, 「신라 성덕왕대의 정치와 사회－'군자국'의 내부 사정」 『역사학보』 160, 1998.
이기백, 「경덕왕과 단속사, 원가」 『신라 정치사회사 연구』, 일조각, 1974.
이기백, 「삼국유사 탑상편의 의의」 『두계 이병도 선생 구순기념 사학논총』, 지식산업사, 1987.
이영호, 『신라 중대의 정치와 권력구조』,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1995.
이영호, 「신라의 왕권과 귀족사회」 『신라문화』 22, 2003.
이영호, 「통일신라시대의 왕과 왕비」 『신라사학보』 22, 2011.
이현주, 「신라 중대 효성왕대 혜명왕후와 '정비'의 위상」 『한국고대사탐구』 21, 2015.
전덕재, 「신라 중대 대일외교의 추이와 진골귀족의 동향」－성덕왕~혜공왕대를 중심으로－, 『한국사론』 37, 1997.
조범환, 「신목태후」 『서강인문논총』 29, 2010.
조범환, 「왕비의 교체를 통하여 본 효성왕대의 정치적 동향」 『한국사연구』 154, 2011a.
조범환, 「신라 중대 성덕왕대의 정치적 동향과 왕비의 교체」 『신라사학보』 22, 2011b.
조범환, 「신라 중대 성덕왕의 왕위 계승 재고」 『서강인문논총』 43, 2015.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30 13:26(KST)

Abstract

On the Biological Mother of the 34th King Hyoseong of Shilla

Suh, Chung-mok

This paper tries to prove that the biological mother of King Hyoseong is not Queen Sodeok but Queen Eomjeong. The record that “Queen Sodeok is the mother of King Hyoseong” as written in “King Hyoseong, first year”, Samkuksaki, means that his legal mother is Queen Sodeok.

There are six evidences which support this fact apparently: the period of Sodeok's Queen consort, the fact that Jungkyeong is not the first legal son, the names of Princes, the year of birth of King Hyoseong, the relation of King Hyoseong and the family of Kim Soonwon, and the relation of King Hyoseong and King Kyeongdeok.

The fact that King Hyoseong's biological mother is not Queen Sodeok shows the political structure and struggle of that era clearly. King Kyeongdeok's biological mother is Queen Sodeok. King Hyoseong and Kyeongdeok are half brothers. Queen Eomjeong is supported by Princess Yoseok who stands at the opposite side of Kim Soonwon. Queen Sodeok is a daughter of Kim Soonwon. The power struggle in the court of this era is performed by Soonwon's grandsons who assassinate King Hyoseong in order to make their cousin Heonyeong be enthroned as King Kyeongdeok.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30 13:26(KST)

Key Words : King Hyoseong, Biological Mother, Kim Soonwon, Queen Eomjeong, Queen Sodeok, King Kyeongdeok

논문 투고일 : 2016. 6. 22 심사 완료일 : 2016. 7. 25
게재 확정일 : 2016. 8. 1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30 13:26(KST)